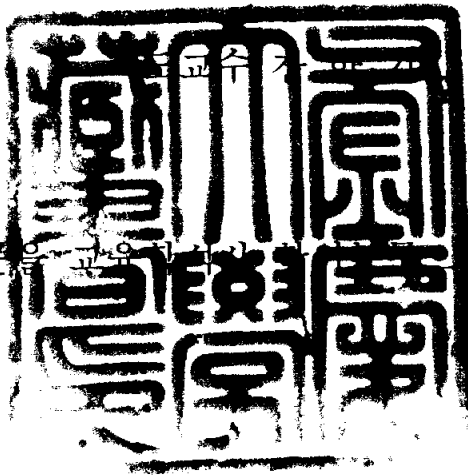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하 경 란

하경란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8월 31일

주 심 교육학박사 원 효 현



위 원 교육학박사 장 한 기



위 원 공학박사 박 종 운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II. 이론적 배경	4
1. 장학	4
2. 장학방침	16
3. 교실수업 개선	17
III.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	23
1. 날개를 펴다	24
가. 제1공화국(1948-1960): 불안정 속의 작은 몸짓	25
나. 제2공화국(1960-1961): 질적 향상에 대한 꿈	29
2. 활주하다	31
가. 제3·4공화국(1962-1980): 정치적 이념의 구현	32
나. 제5공화국(1980-1988): 심신 단련을 통한 전인·평생교육	36
3. 날기 시작하다	39
가. 제6공화국(1988-1993): 본격적 교육자치의 기틀 마련	41
나. 문민정부(1993-1998):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지향	43
4. 높이 날다	46
가. 국민의 정부(1998-2003):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46
IV.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	51
1. 감독 위주의 권위적인 장학	52
가. 제1공화국: 장학의 기틀 마련	52
나. 제2공화국: 장학행정의 근대화 모색	55
다. 제3·4공화국: 현장 출동 장학	56

2. 지원·조장 중심의 장학	63
가. 제5공화국 :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변모	63
나. 제6공화국 : 지역과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의 활성화	66
다. 문민정부 : 학교 교육의 질 향상	68
3. 협의·안내 위주의 장학	72
가. 국민의 정부 : 교실수업 개선의 지원	72
 V.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의 방향	76
1. 감독 위주의 장학에서 지원·협의 중심의 장학으로	76
2. 교육청 중심의 장학에서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77
3.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	78
4.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	81
 VI. 요약 및 결론	82
1. 요약	82
2. 결론	93
 참고문헌	97

표 목 차

<표Ⅲ-1>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	49
<표Ⅳ-1> 제1공화국의 장학방침	53
<표Ⅳ-2> 제2공화국의 장학방침	56
<표Ⅳ-3> 제3·4공화국의 장학방침	58
<표Ⅳ-4> 제5공화국의 장학방침	64
<표Ⅳ-5> 제6공화국의 장학방침	67
<표Ⅳ-6> 문민정부의 장학방침	71
<표Ⅳ-7> 국민의 정부 장학방침	74

CLASSROOM INSTRUCTION IMPROVEMENT IN THE SUPERVISORY POLICY
OF ALL SUCCESSIVE MINISTRY OF EDUCATION

Kyung Ran Ha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rection the future supervision should head for, in addition, to diagnose the past with investigating the trace of effort to improve the classroom lesson for optimizing teaching-learning method, the essence of supervision, in the survey on how the supervision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 has influenced on the change of national society.

These are the subjects to fulfill the aim of this study.

First, what are the features of the supervision policy in the past ministry of education?

Second, what are the improved forms of classroom lesson shown in the supervision policy?

Third, What's the direction of the supervision to improve the classroom lesson?

I attempted historical approach to analyze the supervision policy and collect and analyze documents and policy materials related to the nature of this subject. Above all, the theoretical part about the classroom lessons, I investigated related books and papers. And for the process of transit in the supervision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fte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are classified, analyzed and investigated by the times (the first republic, the second republic, the third and forth republic, the fifth republic, the sixth republic, civilian government and people's government)

The consequence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supervisory policy, from the first establishment of People's government, has chang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As compared to the soaring flying bird, I could set up the four phases of bird's features : like, spreading out wings ; gliding ; beginning to fly ; ended in flying highly. 1. Spreading wings phase : (the first republic - the second republic) 2. Gliding phase : (the third and the fourth republic - the fifth republic) 3. Beginning to fly phase : (the sixth republic - civilian government) 4. Flying high phase : (People's government)

Second, On making observation of the betterment of classroom instruction at the educational supervision policy, you can know the fact that it has no bearing on the shape of educational supervision guidance. I could see the alteration of the educational supervision policy of the all successive department of education as three stages. 1. Supervision - oriented authoritative stage : (the first republic - the third and the fourth republic) 2. Application and furtherance - oriented stage : (the fifth republic - civilian government) 3. Consultation and guidance - oriented stage : (People's government)

Thir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lassroom instruction I could set up a direction of supervision. First, it should change into supervision - oriented application and consultation - focussed education. Second, it should change from board of education to school - oriented autonomic supervision. Third, it should change from teacher - oriented, teaching - learning method to student's active originality phase. Fourth, you should reconsider the quality of class instructio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teacher's finess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의 질은 곧 수업의 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장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장학도 교육의 질, 곧 수업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노력해야 할 입장이다. 장학도 21세기에 대비했어야 한다. 앞으로도 장학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장학을 어떤 측면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각각 다르게 보인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시대 상황에 따라 장학을 달리 정의하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또 장소에 따라,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시학과 감독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또 행정과 장학을 거의 동일시하고 행정적 차원에서 장학을 보려고 하고, 지금도 장학에 그런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한편 학교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교수-학습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일차적인 과제가 된다. 현직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능이 바로 장학이다. 이와 같이 장학이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장학 실체에 있어서는 학교현장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학조직의 미비, 장학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과 수 부족, 장학방법의 관료성, 기타 제반 행재정적 장학여건의 불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학체제에 대한 쇄신의 요구는 이제까지 우리가 장학이란 이름으로 집행하여 온 정책과 그 제도를 검토하여 그 장단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이제부터 우리가 이룩해 갈 장학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학정책의 뿌리가 형성된 과정과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장학 정책 방향을 더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조직의 편제와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장학방침이 국가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가를 고찰하고 그 속에서 장학의 본질적 요소인 교수-학습의 극대화를 위해 교실수업 개선에 기울인 노력의 흔적을 찾아봄으로써, 과거를 진단하고 아울러 앞으로 나아갈 장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앞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은 어떠한가?

셋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의 방향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주제의 성격상 관련 문헌과 관련 정책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로 하고, 장학정책 분석 기법으로는 역사적 접근에 의한 방법을 시도하기로 한다. 역사적 접근 기법은 질적 분석 기법 중의 하나로, 주로 과거에 관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을 말한다. 이 기법은 특정 사회의 특정 역사적 시점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자체의 깊은 원리를 발견하는 데 공헌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접근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먼저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은 관련 도서 및 연구 논문 등을 통해 연구하기로 한다.

장학방침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장학방침을 시대별(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장학)로 구분하여 시대적 특징을 분석, 검토하려고 한다.

4.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한정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와 자료수집 분석 연구에 국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장학방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장학방침은 제외하였다.

셋째, 정권시기별 장학방침의 분석은 제1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까지의 장학방침만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장학

가. 장학의 개념

장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의 수업 개선에 있다. 그러나 장학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자들 간에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현기(1975)는 장학을 ‘교수(instruction), 즉 학습과 아동의 성장발달에 관한 모든 조건을 향상시키는 전문적 기술봉사’라고 정의하여 교육전반에 걸쳐 아동을 지도·조언할 임무가 장학담당자에게 있음을 강조했고, 김영식(1978)은 ‘장학이 교육적 봉사를 향상시켜 교육목적을 보다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태범(1987)은 ‘장학이 교사로 하여금 교과지도능력, 학생지도능력 및 학급 운영능력을 계발하여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보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교육의 지도성을 발휘케 한다고 했다.

김종철(1982)은 장학의 개념 정의를 다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① 법규적 접근(legal approach)으로 ‘계선조직의 행정활동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조언을 통한 참모활동 내지 막료활동(staff operation)’이라 정의하고, ② 기능적 접근(function approach)으로 ‘교사의 전문적 성장, 교육경영의 합리화 및 학생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기술적 보조활동’이라 정의하고, ③ 합리적 접근(ideological approach)으로 ‘교수(instruction), 즉 학습지도의 개선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도·조언’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법규적 → 기능적 → 이념적의 순서로 수업 개선에 접근한 것이다.

Jon Wiles와 Joseph Bondi도 장학의 개념 정의를 고찰해 본 결과 ① 행정(administration), ② 경영(management), ③ 인간관계(human relations), ④ 교육과정(curriculum), ⑤ 수업(instruction), ⑥ 지도성(leadership)의 여섯 측면에서 정의한 것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허만정, 1994 재인용).

즉, 전통적으로는 장학을 행정적 측면으로 정의해 왔고, 현재도 장학과 행정을 선을 그어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장학사가 너무 많은 행정적 잡무로 시달리고 있으며 교육행정가가 장학적 일을 하고 있다. 행정과 장학은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교육체제 운영에서 둘은 서로 조정하고 상호 관련되며, 상보적이고, 기능적으로 서로 분담하는 데 불과한데, 유리한 학습 조건을 제공하려는 것이 행정과 장학의 공통목적이라 할 수 있다(주삼환, 1982).

Thoms J. Sergiovanni와 Robert J. Starratt는 행정과 장학의 관계를 학교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물과 아이디어를 동원하면 행정적 방법(administrative way)이고, 사람을 통하여 학교목적을 달성하려 하면 장학적 방법(supervisory way)이라고 하여 구별하고 있는데(허만정, 1994 재인용), 관료적 학교조직에서는 행정적 방법을 많이 동원하고, 전문적 학교조직에서는 장학적 방법에 더 비중을 둔다고 하였다.

장학을 경영의 측면에서 정의하려는 경향은 학교체제가 점점 거대해지고 경영체제, 생산체제의 경영 기법들이 교육계에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주로 1970년대에는 학교를 하나의 생산체제로 보고, 장학을 조직경영의 측면에서 다루려 하였다.

경영과 행정에서 인간관계 시대의 영향이 장학에서는 민주장학, 협동장학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장학담당자를 촉진자(expeditor), 의사소통 조성자,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하는 연락자, 직원들

자극하는 사람 등으로 보아(Kimball Wiles, 1967) 인간관계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Thomas J. Sergiovanni와 Robert J. Starratt는 인간관계 장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자원 장학(Human Resources Supervision)의 입장에서 ‘개인의 욕구를 학교목적과 과업에 결합시키는 데 강조’를 두고 있다(주삼환, 1987).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장학을 정의하려는 입장은 특히 구 소련의 Sputnik 쇼크 직후 1960년대에 강하게 나타났다. 당시 장학사들이 하는 일은 주로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정이었다.

또 장학을 수업에 초점을 두어 정의하려는 학자들이 있다. 미국의 ASCD는 장학담당자를 ‘교수(teaching)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이나 개발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라 하여 장학을 주로 수업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 Mark, Stoops와 King-Stoops도 장학을 ‘교수와 프로그램 개선에 목적을 둔 행동과 실험’으로, Lloyd Dull도 ‘수업 개선의 목적으로 행하는 전문교육자의 행동’으로 수업의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허만정, 1994). 많은 다른 저자들이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수업 개선(improvement of instruction)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학을 지도성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집단들이 있다. Ralph Mosher와 David Purpel은 ‘교육과정, 수업조직 형태 등에서 전문적 지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라 하여 지도성 기능으로 정의하였고, Jon Wiles와 Joseph Bondi도 ‘행정, 교육과정, 교수를 연결하는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학교활동을 조정하는 지도성의 기능’으로 정의했으며, 그 외의 많은 책들이 수업지도성(instructional leadership)을 강조하고 있다(허만정, 1994).

위의 여섯 개념정의 접근도 궁극적으로 수업개선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만 무엇을 통해서 수업을 개선하느냐의 접근의 차이일 뿐이다.

나. 'Supervision'과 '장학'의 의미

장학에 대한 논의를 Supervision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자세히 설명한 선행연구(장한기, 1996)를 고찰하면서 장학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즉 Super는 '위에서' 또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vision은 '보다'는 뜻의 video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장한기, 1996). 그래서 그 두 의미를 합친 oversight, 즉 감시, 감독, 또는 통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Supervision 및 Supervisor라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독하다, 지휘하다, 관리하다, 관장하다'라는 뜻의 supervise라는 동사에 주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supervision은 동사에 붙여서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드는 어미 -ion을 붙여 만든 단어이고, supervisor는 행위자의 뜻을 가지는 명사를 만드는 어미인 -or을 붙여서 만든 단어이다. 따라서 supervision은 감독하는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고 supervisor는 감독자를 뜻하는 매우 전제적이고 억압적 관료적인 의미를 지닌 말들이다.

그런데 우리말의 獎學에 대해서는 글자의 의미를 따져서 그런 식으로 뜻풀이를 한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獎은 '표창한다. 권한다, 인도한다, 돕는다'는 뜻이고, 學은 '배운다, 깨닫는다' 또는 '공부, 배움'을 뜻한다. 따라서 獎學은 '공부나 학문을 장려함'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Encouragement of Learning'이 될 것이다. 또 士는 명사 다음에 붙어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의사나 변호사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직(professional)을 뜻하는 말로 곧잘 쓰인다. 따라서 獎學士는 '공부나 학문을 장려하는 전문직', 또는 '공부나 학문을 장려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의 장학이라는 말에는 supervision이라는 어휘가 갖는 감시, 감독, 또는 통제와 관련된 전제적 의미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으며, 티잡을

데 없이 이상적인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장한기, 1996).

다. 장학의 유형

장학의 유형은 분류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행정 조직 및 장학조직 수준에 따라 문교장학, 학무장학, 교내장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신경수, 1994). 또한, 수업개선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일반장학, 수업장학, 임상장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학의 유형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 관련자들의 욕구에 따라서 장학의 방법도 변화되어 왔다.

특히 장학의 최종적인 완성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장학 행정도 교사와 학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부여하여야 하며, 장학지도의 방법도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어야 하고, 학교 규모와 학교 특색에 따라 알맞은 장학 방법을 선택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선택적 장학이란 한정된 장학의 자원과 교사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요구되는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사정에 따라 교사로 하여금 몇 가지 장학대안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도 집단장학보다 개별장학을 바라며, 행정기관중심에서 학교중심으로, 이론중심에서 현장중심으로, 평가중심에서 지도중심으로, 상하관계에서 동료관계로, 획일적 방식에서 선택적 방식으로 장학의 기본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조병효, 1991).

Glatthorn(1984)은 선택적 장학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행정가와 장학사에 의한 표준적인 장학의 실체는 흔히 부적절하고 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2. 모든 교사에게 임상장학을 적용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임상장학은 시간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교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3. 교사들이 각기 다른 성장욕구와 학습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사들이 좋아하는 상호작용 형태가 서로 다르다.

선택적 장학의 이점은 교사 스스로 장학 형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장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학교 풍토에 대한 교사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임상장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기기 때문이다(신경수, 1994).

교육의 질은 교사에게 달려 있으며 효과적인 장학은 참여적인 행정가와 장학사에게도 요구된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장학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택된 장학체제의 유형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임상장학(clinical supervision)

임상장학 방법은 일반 장학과는 달리 교사와 장학 담당자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수-학습 개선에 접근하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장학 방법의 하나이다. 임상장학(clinical supervision)은 1950년대말 M. L. Cogan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수업장학(instructional supervision)과 섞여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강영삼의 ‘장학행정’, 주삼환의 ‘임상장학의 적용가능성’과 ‘임상장학방법’, 변영계의 ‘수업개선과 수업장학’, 김홍원의 ‘수업장학관계’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신경수, 1994).

Cogan에 의하면 임상장학은 직전 교육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임상장학은 커다란 진통을 통하여 출생하며 이 진통에 감독하는 교사, 학생 입장에 있는 교사, 대학 장학 담당자 등이 동참하게 된다고 말했다(Cogan, 1973, 신경수, 1994, p. 12에서 재인용).

따라서 임상장학은 지시적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적이고, 권위적이라기보다는 민주적이고, 장학 담당자 중심이라기보다는 교사 중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 중심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업장학을 위한 현장중심적 접근이며 교실 내의 뚜렷한 조작적인 면과 경험적인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교사와 장학담당자 사이의 대면적 관계성과 교사의 교실 내 수업 실제 행위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임상’이란 말을 쓰고 있다.

임상장학의 기초는 의사전달과 동료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주는 일인 동시에 임상장학은 의사전달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학구적인 노력과 동료 전문가로서 교사의 인격체를 위한 진정한 존경심이 임상 장학의 잠재력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다(Charles A. Reavis, 1978, 신경수, 1994, p. 12에서 재인용).

따라서 임상장학은 수업 계획에 관하여 교사와 계획 협의회를 갖고, 수업을 관찰하며, 관찰자료를 분석하고, 교사에게 관찰 결과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수업개선을 도모하고자 설계된 집중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교사가 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화하며, 장학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장학 담당자의 도움으로 해결을 촉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의 과정을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이 교사와 장학 담당자의 의도적인 계획하에 적절한 상호관련을 맺어 나갈 때 효과적인 임상장학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2) 동료장학(peer supervision, cooperative supervision)

동료장학이란 서로간의 수업을 관찰하고, 서로 관찰에 대하여 피드백하고 공동적인 전문적 관심에 대하여 토의하는 방법이다. 만일 원한다면 다른 수업활동에 대하여 협동할 수도 있는데, 엄격한 장학적 훈련도 안 받고, 긴 시간을 사용하지도 않고 엄격한 협의회를 생략할 수도 있고 하여 임상장학 보다는 덜 집중적이고, 또 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만일 교사들이 임상장학 방법의 훈련을 받았다면 임상장학 방법을 그대로 상호적용하게 할 수도 있다(주삼환, 1983).

동료장학 속에는 ① 장학담당자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는 동료장학, ② 장학담당자와 교사가 공동협력하는 동료장학, ③ 교사와 교사가 서로 협력하는 동료장학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최진용, 1987).

동료장학의 기본적 성격은 ① 동료관계는 꽤 형식적이고 제도적이다. 그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교사들이 우연히 방문하는 단순한 비공식적 교류는 아니다. ② 수업연구의 경우 교사들은 최소한도 두 번 이상 서로의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한 후에는 협의회를 갖는데 동의한다. ③ 동료관계는 동료들 상호간에만 존재한다. 행정가나 장학담당자들이 동료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때로는 지도하기도 하지만 관찰, 협의회 및 토의에는 교사들만 참여한다. ④ 동료관계는 평가적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동료장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① 동료장학은 분권화의 조류와 맥을 같이 한다. ② 동료장학은 참여, 자율화의 거대 조류와 일치한다. ③ 동료장학은 전문직적 특성과 일치한다. ④ 앞으로의 교직사회는 개방과 협동을 요구하게 된다(김영식의, 1991).

동료장학의 방법은 ① 비공식적 관찰 협의, ② 초점관찰-자료제공, ③ 소규모 현직연수위원회, ④ team teaching, ⑤ 임상장학에 의한 동료장학, ⑥

동료 코치, ⑦ 동료연수회 등이 있고, 이와 같이 동료장학은 학교 조직 수준에서 협동적인 동료 교사들이 소집단을 이루어 자신들의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료적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통적 관심을 갖고 토의하며 특히 동교과 중심으로 행하여 질 때 더욱 수업개선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동료의식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경험 있고 유능한 교사들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장학의 역기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장학방법이다.

(3) 자기장학(self-supervision)

Allan은 자기장학은 임상장학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교사가 혼자 독립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성장을 위하여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신경수, 1994, p.18에서 재인용). 이것은 능력 있고 경험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교사는 ① 자신의 수업을 혼자 녹음, 녹화하여 듣거나 보면서 수업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고, ②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 분석하면서 수업개선을 위해 혼자 노력할 수도 있고, ③ 혼자 전문서적을 읽거나 필요한 전문가를 찾아가 협의하여 전문적 성장을 꾀할 수 있고, ④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고 필요한 연수나 강연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주삼환, 1983).

자기장학의 추진과정은 계획수립단계, 실행단계, 결과협의단계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이 자기장학은 임상장학을 원하지 않는 교사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전문성 성장을 위하여 연구하는 과정이며 역시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사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 동시에 혼자 일하기를 선호하는 교사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높은 평가를 두는 장학방법이다.

(4) 전통적 장학(traditional supervision)

전통적 장학이란 현재 학교에서 교장이 예고 없이 잠깐 교실을 방문하고 느낌이나 발견사항 등을 간단히 적어 교사에게 피드백을 해 주거나 잠깐 만나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라 하여 약식장학이라고도 한다(주삼환, 1983).

이와 같이 교육행정 조직수준의 행정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짧은 시간에 세밀한 계획없이 관찰하여 사후에도 협의회가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효과면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며 훌륭한 교장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수업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을 나름대로의 장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 장학이 수업개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누가 감독하며 수업참관시 교사나 행정가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피드백과 기록을 하는가, 관찰자료를 교사 평가에 반영하는가 등이 공개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장이나 교감 등 행정가가 이러한 장학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체계적이고 피드백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관찰자의 기록은 교사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며, 관찰 자료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교사에게도 알려지는 것이 좋다. 둘째, 전통적 장학을 계획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의해 실시하여 체계적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 장학은 학습 중심적이어야 한다. 넷째, 행정가가 관찰 자료를 가지고 교사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며, 교수 프로그램과 학교 풍토의 현상을 평가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5) 수업장학(instruction supervision)

Harris(1985)는 수업장학을 '학생의 학습을 향상하기 위해 수행되는 교수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학교운영을 유지 또는 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인적·물적자원을 다루는 일'로 정의하고, Lovell와 Wiles(1983)는 '학생을 위한 학습기회의 설계와 실현을 유지, 변화, 개선할 수 있도록 교수 행동체제와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학교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적 행동체제(additional behavior system)로 정의하고 있다(신경수, 1994, p. 20에서 재인용).

또한 수업장학은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수업장학행위'는 교사의 '수업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행위'의 변화를 가져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실 개혁이 혁신의 최종채택자인 교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수업개선을 가져와야 하듯이 수업장학도 수업개선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6) 교내 자율장학

자율장학은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전통적 장학과는 달리 단위 학교가 주체가 되며 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들이 공통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내 장학의 기능도 궁극적으로는 장학의 기능과 같이 교사의 행동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학습 개선을 이룩하는 데 있으나 행정 조직수준에서 학교

조직수준으로 접근하여 보다 수업에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McKean과 Miles(1964)는 ① 지도의 기능, ② 조정의 기능, ③ 자원과 봉사의 기능, ④ 평가의 기능으로 논하고(신경수, 1994, p. 22에서 재인용), 김세기(1981)는 ① 경영시책의 주지, ② 새로운 교육이론(또는 사조)의 보급 및 계몽, ③ 현장의 교육실천을 위한 이론 확립, ④ 문제 분석 및 해결(교수-학습과정 위주), ⑤ 학교 평가의 과학화, ⑥ 우수교원의 발굴 및 교직성장 촉진을 들고 있다. 또한 정태범(1982)은 장학의 교육학적 접근과 장학이 수행되는 조직환경에 근거하여 장학의 기능을 ① 감독적 관리 기능 ② 전문적 지도 기능 ③ 협동적 조언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방법과 장학적 방법이 동시에 가미된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내 자율장학도 결국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교수-학습에 관련된 기능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다변화되고 있는 변혁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내 자율장학의 테두리는 더욱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삼환(1983)은 교내 장학의 방향을 ① 수업개선과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방향 ② 장학의 개별화, 다양화, 인문화, 민주화의 방향 ③ 전문화와 능력개발의 방향 ④ 협동적 노력의 방향 ⑤ 교사의 동기유발에 의한 장학의 방향을 들고 있다. 이와 달리 유성순(1987)은 ① 행정의 획일화 지양 ② 교육의 본질 중시 ③ 대화와 협의 중시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종태(1989)는 학교 교육의 질적인 발전은 학교장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교내 자율장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보조와 교사 스스로의 자각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장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적 획일주의에서 탈피하여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내 장학을 통하여 교사는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거나 교수 기술을 발전시키며,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운

영하면서 제반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장학의 본질에 알맞은 수업장학이 교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장학방침

가. 장학방침의 개념

장학방침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장학행정과 관련된 업무 영역으로 교수-학습과 학생의 성장 발달에 관한 모든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전문적 기술, 봉사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능한 대안 중에서 의도적, 합리적으로 선택한 행동 경로나 행동 방법에 대해 세부 결정을 정해 놓은 지침이다(박우진, 2002).

정부수립 이후 국가 교육운영에서 기본방침을 장학방침으로 불리오다가 제5공화국에 와서 문교시책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주요 업무계획 속에 장학방침이 포함되어 시행되었다. 정부의 장학방침이 변화하면 행정조직도 변화한 경우도 있었으나 행정조직이 그대로 있으면서 장학방침이 변한 경우도 빈번했으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장학방침이 변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 장학방침은 단위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장학행정은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장학방침에 따라 학교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와 다른 하나는 방침과는 관계없이 장학방법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장학방침은 국가의 교육시책과 장학행정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지침으로 시달한 것을 의미하며, 장학방침, 문교시책, 주요 업무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 시달되었으나,

국가의 시책과 정책의 방향을 시달하는 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3. 교실수업 개선

가. 교실수업 개선의 개념

한국 교육 개발원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교실수업 개선을 “학습자의 학습속도와 관심에 있어서 개인차를 존중하고 내재적 흥미에 의해 자율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 과정 편성 및 학습 집단 편성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총체적 자율화 교육이다.”라고 요약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본 연구에서도 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교실수업 개선 정책의 의미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많은 지식량을 자랑하는 만물박사형의 인간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즉, 우리 교육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 된 것이다(김승익, 2002).

사실 탐구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이 강조되는 상황일지라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암기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점수를 올리기 위해 암기위주로 학습하는 것과 향후 자신의 소질을 살린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단계를 밟는 과정으로서의 암기는 다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실수업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1)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개혁의 필요성

지난 1990년대를 전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교실붕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해야 하는 것은 교육의 몫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현재의 사회적 변화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지식·정보가 생산수단 및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사회변혁의 물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개혁의 근본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진 각국들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교육정책을 통해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5.31 교육개혁,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새 학교 문화 창조,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범위 등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교육 내실화, 즉 교실수업 개선에 두고 있다. 실제적으로 각 개혁과제들이 조직체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추진되고 있지만 기실 궁극적인 목표점은 교실수업 개선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운영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을 원하고 있다. 사실 국가나 시·도교육청, 각종 연구기관 및 교과교육연구회, 대학 등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자료를 개발 보급해 왔으나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보화 시스템의 발달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수준의 노력으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경제적이고도 효과적인 체제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자료가 매우 산재되어 있을 뿐더러 자료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2002년부터 「교수-학습센터」 구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2)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역할

다양해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은 평생학습을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게 되며, 생성된 지식과 정보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고, 자문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함에 따라 향후 학생들에게 주체성과 자율성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오늘날과 같은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관계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학습에 대한 요구도 변화시켜,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이 구체적인 학문 내용에 대한 학습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는 스스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문제 중심적 시각으로 정보를 선택,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교육과정중심의 학교교육 정착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과 더불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양한 인재 육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처럼 교과서 일변도의 천편 일률적 수업이 아닌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한 창의적 수업 구성을 위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적극 보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즉, 학교와 학생의 개별적인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직시한 것이다.

담당교사 및 각 교과 담당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강조되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우리 교육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이상 실현이 너무 무리한 요구하고 회의를 제기한 것이 사실이고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는 의견이다. 국가 수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고시 이후 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변화는 교실수업 개선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다. 교사에게 수업 운영의 재량을 확대, 부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수업 운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교사가 학교에서 진정으로 서야 할 자리는 교실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행위는 좋은 수업을 구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모습이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현장의 여건을 파악하고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실 있는 수업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교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주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개혁 과제들은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다.

(4)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학교 시설 및 교원 확충 등 교육 여건의 개선, 교원 연수 기회 확대 및 우수교원 확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보급 등의 노력은 국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결 과제는 교수-학습을 이끌어 가야 하는 교원 스스로가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일 것이다.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교원들의 몫이다. 그러나 교원들이 전문성 신장이라는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해 주고, 연수 기회를 확대해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나 시·도교육청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일련의 정책 추진 사업 중에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이나 교직원발전종합방안 등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노력이나 교직원 조직을 사무중심에서 교과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꾀하는 등의 노력은 수업개선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실수업 개선 연구학교 및 시범교육청 운영, 교실수업 개선 우수사례 워크숍 개최,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 보급, 「교수-학습센터」 구축 운영 등은 교실수업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크게 보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이 확대 부여되었다.

Ⅲ.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이 어떤 발달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시대별로 개관하였다. 교육행정에서의 장학방침이나 시책의 수행은 학교 교육의 실천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시대별로 어떤 장학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수행을 위한 어떤 운영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의 시대별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장학의 시대적 특징을 정태범(1996)은 “정초기의 장학(미 군정기, 제1공의 장학, 1945-1961), 권위주의 시대의 장학(3·4공, 5공, 6공 시대의 장학, 1961-1993), 문민시대의 장학(문민정부의 장학, 1993-2002)”으로 구분하였다. 한기언(1969)은 해방이후의 교육이념 전개 과정을 “하향식 강조시대(1945-1953), 교육이념 경시시대(1953-1963), 모색·시론 제기 시대(1963-1968)”로 구분하며, 김형관 등(2000)은 장학을 “역사 시대적 구분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미군정시대, 정부수립 및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1990년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이 장에서는 장학방침의 시대적 특징을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정부의 장학으로 시대적 구분을 했다.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정부까지 장학방침을 살펴 본 결과, 그 특징을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4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새의 비상에 비유하여 ‘날개를 펴다, 활주하다, 날기 시작하다, 높이 날다’로 명명하였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대는 새가 날개를 펴는 단계라고 하였다. 제3·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 시대는 날기 전 활주로를 달리는 단계, 제6공화국에서 문민정부까지는 날기 시작하는 단계, 국민의 정부는 높이

나는 단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을 단계별로 보게 된 것은 장학방침의 변화를 살펴 볼 때, 새가 바로 날아갈 수 없듯이 우리 나라 장학방침도 어느 순간 궤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50여 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1. 날개를 펴다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의 장학방침의 특징을 새가 날개를 펴는 것에 비유하였다. 날기 위한 첫 단계로서 날개를 펴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이 공포되고 문교부가 발족되면서 장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는 문교부 장관의 잦은 경질로 장학목표의 변동이 심하여 문교행정의 안정성의 결여된 면도 있으나, 사회적 요구의 변동에 적응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도 크다.

이 시기의 교육에 나타난 특징은 민족의식과 반공사상을 도입하기 위한 민족주의 교육, 국방교육, 민주주의 교육, 교육현장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두된 도의 교육,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부응하는 생산교육과 과학 진흥 교육이 장학방침으로 강조되었다.

제2공화국의 장학방침은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의 중립성 확보(손인수, 1994)를 내세워 교육의 정상화에 힘썼으며,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교육자치체의 강화, 학원 분규의 수습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급진적 개혁으로 학원의 무질서를 가져 왔다(정태범, 1998). 제8대 오천석 문교부 장관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 정책 등을 펼치고자 하였다. 해방 이래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었던 생산, 과학, 체위향상, 국민 문화 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고등교육의 질적 정비에 대한 착상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한기언, 1969).

가. 제1공화국(1948-1960) : 불안정 속의 작은 몸짓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이 공포되고 문교부가 발족되면서 장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는 문교부 장관의 잦은 경질로 장학목표의 변동이 심하여 문교행정의 안정성의 결여된 면도 있으나, 사회적 요구의 변동에 적응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불안정 속의 작은 몸짓’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에 나타난 특징은 민족의식과 반공사상을 도입하기 위한 민족주의 교육, 국방교육, 민주주의 교육, 교육현장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두된 도의 교육,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부응하는 생산교육과 과학 진흥 교육이 장학방침으로 강조되었다.

(1) 민족주의 교육

정부 수립 초기의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장학방침이나 문교정책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홍익인간의 이념을 부각시킨 민주주의 민족교육, 일민주의 사상 등을 제창하고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는 교육의 실현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후 6·25동란을 겪으면서 “멸공필승의 신념을 배양하고 전국과 국제 집단 안전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는데” 전시교육의 중점을 두어 민주국가의 공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치 능력을 기르고 국민으로

서의 긍지를 높이는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 실정에 비추어 국민체위 향상과 군사적 기술 연마를 위한 교육과 세계안전 공동 방위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 교육이 실시되었다.

1952년의 국가적·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따라 수립된 장학방침은 자활인의 양성, 자유인의 양성, 평화인의 양성의 3대 방침이었다(한국교육문제연구회, 1974). 여기서 자유인의 양성은 자유를 알고 자유를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자유 국민을 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과 자유 평화를 유지하는데 공헌하고 국제적 안전보장의 이상을 실현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하고 국제적 안전보장의 이상을 실현할 평화인이 되자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1953년의 장학방침은 건국문교, 전시문교, 독립문교였는데 건국문교는 도의교육과 생산교육을 강조하는 자유, 평등, 협동, 공정의 목표를 향한 전인교육을 의미하며, 전시문교는 생활교육과 국방교육의 강화로 교육전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독립문교는 교육에 독립을 기해 대내적으로 교육자치의 성과와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민족 문화를 형성하려는 시책이었다.

(2) 민주주의 교육

광복이후 우리의 교육은 옛 체제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건국이념에 맞는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 민주교육이었다.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당시 세계적인 교육학의 흐름으로 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개성 존중, 아동 존중의 교육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민주교육이론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들에 의해 교

육계에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해방이후 새로운 민주국가 건설의 국가적 열망은 민주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급속도로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요구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지향한다는 교육개혁운동인 새 교육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이론의 영향을 받아 아동의 개성과 자발적인 활동이 되는 아동 중심 교육, 경험중심 교육, 생활중심 교육이 소개되었다. 민주주의 교육에서는 민주 자주적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거나 모방·맹종하지 않는 민주적 민족교육을 추구하였다.

(3) 국방교육

당시의 혼란한 정세에 비추어 학원의 안정과 반공 체제의 확립이 시급을 요하는 과제였기 때문에 반공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일민주의 사상의 보급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도호국단의 조직이나 중학교 이상의 학생에 대한 군사 교육의 실시 등으로 국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1950년의 6·25 동란은 학교 시설과 교재의 파괴 등 교육에 많은 타격을 주었다. 전시교육의 중심은 국가의 진정한 독립을 유지·실현하기 위해 학문을 닦고 지식을 넓혀 실천 생활과 기술을 습득하여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 하는 한 개의 인격을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도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1954년의 장학방침에서는 반공사상을 함양하고 정신을 무장하여 통일 독립에 매진할 것과 건강체위 향상, 1955년의 장학방침에는 반공사상을 기르고 민주도의 생활의 확립으로 통일과 독립의 선봉이 되는 정신교육을 강조하였다.

1956년의 장학방침은 반공사상을 투철히 기르고 민주도의 생활을 확립하

게 하며, 과학 및 실업교육을 충실히 하여 생산 기술을 체득케 하며, 보건 위생 및 체육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신체로 발육하게 한다는 것이었다(손인수, 1998). 이는 정신교육면에서는 반공사상, 생산교육면에서는 과학·기술의 습득, 건강교육면에서는 체위의 균등 향상을 기하는 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도의교육을 진흥하여 민족의 얼을 고취하게 하는 장학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며 이는 도의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반영하게 되었다.

(4) 생산교육(과학진흥교육)

3년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와 전쟁으로 무너진 국민의 정서를 일으키는 것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교육의 제정비가 교육의 새로운 과제였다. 전쟁 중의 국민 경제의 시급함에 비추어 교육을 통한 직업·기술의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기술 교육을 강조하였다. 민족주의 교육, 도의 교육과 함께 강조된 생산교육 혹은 과학기술교육의 구체적인 시책은 1인 1기 교육을 실시케 하여,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기술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해 1951년 3월 10일에는 문교부령으로 과학교육위원회를 두었다. 이러한 1인 1기 교육방침은 전쟁 후 우리나라의 재건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 진다. 1952년의 자치인의 양성은 기술교육과 직결되며 1953년에는 건국문교로서 전쟁 중의 비상시에 도의양양·생산 진흥의 장학방침을 강조하였고, 1954년의 장학방침에서도 과학기술교육이 강조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생산과 생활교육의 구체적인 시행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자주적 경제 능력의 함양과 국가 재건을 위한 지침으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시책이었다(손인수, 1998).

이상과 같이 제1공화국의 장학방침의 특징은 표현상 차이는 있으나 대체

로 비슷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방교육과 반공교육, 국민사상의 통일 등 6·25의 민족적 비극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국민적인 의지와 건강교육이 강조되었다. 또한 도의교육의 지속적인 강조는 당시의 교육현장을 둘러싼 사회적 비판을 반영하여 교육자의 인격과 자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생산과 직결되는 교육,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등은 전쟁 후의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교육과 경제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교직자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정책면에서 반영되었다.

나. 제2공화국(1960-1961) : 질적 향상에 대한 꿈

제2공화국의 장학방침은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의 중립성 확보(손인수, 1994)를 내세워 교육의 정상화에 힘썼으며,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교육자치체의 강화, 학원 분규의 수습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급진적 개혁으로 학원의 무질서를 가져 왔다(정태범, 1998). 제8대 오천석 문교부 장관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 정책 등을 펼치고자 하였다. 해방 이래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었던 생산, 과학, 체위향상, 국민 문화 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고등교육의 질적 정비에 대한 착상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한기언, 1969).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질적 향상에 대한 꿈’이라고 하였다.

(1) 학원의 민주화

1960년 5월에서 8월까지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이병도는 당면한 문교시책의 구현안으로서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의 중립성을 내세웠다.

학원의 정상화는 학원분규를 조속히 수습하고, 인화를 위주로 신의와 관용으로써 민주학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소정의 수업일수(초·중·고 230일, 대학 210일)를 확보하여 학생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고 교무조직 및 행정의 민주화를 이룰 것 등이 제시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이와 같은 문교정책은 학원 내의 혼란을 수습하고, 또한 정치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교원의 정치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경찰의 학원 간섭 등을 금함으로써 학생의 자치권을 보호하고 교육자치제를 확립하여 교육의 민주화를 교육에 대한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여 교육의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 학원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강한 의지였다고 보여 진다.

(2) 교육의 질적 향상

4·19혁명을 계기로 우리 교육은 새로운 철학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오천석은 교육이 목적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에 있다는 인식 위에 행해진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쳤던 종래의 지식 중심적인 교육과는 달리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사조 및 듀이의 교육철학에 영향을 받아 지식은 개인의 삶의 형성과 사회의 도의적 질서를 세우는 도구의 수단이며 학교 자체가 민주주의적 분위기를 갖는다는 민주교육 실현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 교육의 중립성 확보

우리나라의 교육법에는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에 치우

치지 않아야 하며, 학교와 교사도 특정 종교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당 말기의 정치세력은 교육공무원과 학생을 상대로 한 정치부역을 자행해 교육의 중립성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이에 이병도 문교부장관은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의 자주성, 학원에 대한 관권의 배격에 힘썼다(손인수, 1994). 1961년 제9대 문교부 장관인 윤택중 장관은 학제, 교육자치제, 교포교육, 장학금제도 등에 관한 민주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구상하다가 5·16 쿠데타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당시 정권의 독재와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고자 일어난 4·19 혁명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권의 신장”은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조국 근대화를 통한 경제적 성장의 모색(교육인적자원부, 2001) 등을 교육에 반영하였다. 5·16혁명기 과도정부와 제2공화국의 장학방침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민주교육의 강조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원의 민주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지방분권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개혁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활주하다

제3·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시기의 특징을 새가 날기 전에 활주하는 단계로 보았다. 5·16 쿠데타 이후 수립된 군사 정권은 강력한 통치 수단을 통해 전 영역에서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 교육은 이러한 정치적 이념을 국민교육을 통해 인식시키는 역할과 경제 성장을 주도할 인력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제2경제” 이념이 등장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론, 국적 있는 교육론이 대두되었고 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되었다.

이 시기의 장학방침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정치적·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 향토학교의 건설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교원 연수와 교육자 자질의 향상,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 안보교육의 강화, 민족주체성의 강조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교육개혁과 장학의 방침을 요약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 국적 있는 교육, 안보교육의 강화, 국민교육헌장이념 교육, 새마을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의 출범 직후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전인교육의 충실, 평생교육의 확충의 4대 지표를 제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문교부가 매년 초 작성하는 “주요업무계획”에서 문교부의 시책 방향과 문교지표가 국가수준의 교육지표 역할을 하여왔다.

가. 제3·4공화국(1962-1980) : 정치적 이념의 구현

5·16 쿠데타 이후 수립된 군사 정권은 강력한 통치 수단을 통해 전 영역에서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 교육은 이러한 정치적 이념을 국민교육을 통해 인식시키는 역할과 경제 성장을 주도할 인력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제2경제” 이념이 등장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론, 국적 있는 교육론이 대두되었고 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정치적 이념의 구현’으로 보았다.

이 시기의 장학방침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정치적·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 향토학교의 건설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교원 연수와 교육자 자질의 향상,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 안보교육의 강화, 민족주체성의 강조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교육개혁과 장학의 방침을 요약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 국적 있는 교육, 안보교육의 강화, 국민교육헌장이념 교육, 새마을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교육의 질적 향상

의무 교육이 완성된 1960년대의 교육의 질적 향상은 시설의 미비와 교사들의 정신 자세와 교육방법의 결함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현대적 교육기술의 보급과 교원의 현직연수 등으로 이루어졌다. 1963년 국가단위의 교육과정이 법제화되고 이에 따른 교과서가 정비되면서 경험 중심적인 학습지도, 개별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시청각을 통한 학습 지도, 도서관의 정비와 그 활용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교육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실험 실습의 가치를 중시하는 과학 기술교육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부응하여 생산기술을 연마하고 학생의 자율적 학습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정비가 추진되었다(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또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입시제도의 개선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수업의 정상화와 학생의 자율적 학습활동의 조성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교육자치제의 부활과 사학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국민정신교육을 통해 주도되어 통제 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국적 있는 교육의 추진

1960년대 일기 시작한 민족주체성 확립의 문제는 1970년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토대로 민족주체성 교육으로 체계화되었고, 이는 교육의 국적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한국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토대로 주체성 교육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해방 이후 외래 문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서구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역사성과 개별성을 무시하고 자유교육을 강조한 나머지 주체성 교육을 소홀히 한 면이 많았다. 그런데 1972년의 제1회 건국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이 국적 있는 교육을 제창함으로써 주체성 교육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바른 민족사관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족사적 정통성의 올바른 인식의 강조에 따라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한국민주주의의 토착화, 국민정신교육으로 연결되어 충효사상의 고취와 국민도의 진작에 구심점을 이루었다(한국중등교육협의회, 1980).

국적 있는 교육의 신장을 위한 장학방침은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식하고 한국 민주주의 이념의 당위성을 확신시키고 공산주의 및 북한의 체제에 대한 비판 능력을 기르기 위해 사상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경애와 공덕심을 고취하고 예의를 지키는 우리의 미풍 양속을 되찾는 사회 윤리 실현을 위한 국민도의 실천을 강조하였다(대한교육연합회, 1976).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 민주주의의 고취는 교육을 통해 확립시켜 나갔다.

(3) 안보교육의 강화

정부수립과 6·25를 겪으면서 우리 교육의 주축을 이룬 반공교육은 혁명공약 제1조에 반공을 국시로 삼을 국가적 방향으로 5·16이후의 교육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조국의 근대화를 앞세운 국방력의 강화와 국가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민족 주체성과 국민적 윤리관을 강조하는 교육활동이 중요

한 교육적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문교부는 반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사용 지침서와 도덕 교과서를 개편하여 반공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70년대 까지 강화된 안보교육과 군사교육을 강조한 반공교육은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의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

(4)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

1960년대의 경제적 과정에서 나타난 물질적 가치를 배격하고 정신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민족주체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교육지표로 1968년 12월 5일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했다. 국민교육 헌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분단된 국토의 통일과 산업경제의 근대화, 민족문화의 창달로 민족중흥의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상을 수립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주체성에 기초한 국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한국교육의 핵심 요소를 교육의 기본 이념 속에 강조하며 장학의 중요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이의 구현을 위한 각급 연구학교, 실험학교가 지정되어 교과지도, 생활지도 등 각 방면에 걸친 교육 실천의 연구와 공개, 지도적 인사, 전문가의 강연회, 연구학교에서의 강좌 설정 등을 통해 교육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5) 새마을 교육

새마을 운동은 교육의 사회화를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동 체제를 강화시켜 국민생활의 합리화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갖춘 인간을 길러

념으로써 빈곤을 탈피하고 소득증대 및 부강한 국가건설을 추진한 집단 실천 운동이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정신의 함양으로 향토개발과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실천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한 교육방침으로는 ① 교육과정의 향토화 운영 ② 학습지도의 다양화 ③ 합리적·능률적·생산적 생활 기풍을 위한 생활지도 ④ 성인교육의 참여 ⑤ 봉사활동의 전개 ⑥ 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적 생산교육 실시 ⑦ 학교 시설의 완전 개방 ⑧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선정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1972년 이래 장학방침에서는 계속해서 새마을 교육의 심화와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를 통한 새마을 교육을 실천해 왔다. 70년대 전반에는 새마을 교육의 심화를 통하여 그 기반을 조성하였고, 후반기에는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를 통해 그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나. 제5공화국(1980-1988) : 심신 단련을 위한 전인·평생교육

제5공화국의 출범 직후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전인교육의 충실, 평생교육의 확충의 4대 지표를 제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문교부가 매년 초 작성하는 “주요업무계획”에서 문교부의 시책 방향과 문교지표가 국가수준의 교육지표 역할을 하여왔다. 이 시기의 특징을 ‘심신 단련을 통한 전인·평생교육’으로 보았다.

(1)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국민정신교육은 정치사상 교육의 충실과 사회윤리 교육, 새마을 교육의 활성화를 목표로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여 유치원에서는 질서, 협동정신의

함양, 초등학교에서는 부모 공경, 나라사랑의 정신 고취, 중·고등학교에서는 준법정신, 자주정신, 책임감 제고, 대학에서는 공산주의 비판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영역을 통일·안보교육, 국민윤리교육, 경제교육, 새마을 교육, 사회정화 교육 등으로 조정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또한 국민정신교육의 내면화를 위해 경로·효친 교육의 실시와 도서관 및 학·예술원회관의 신축, 통일·안보교육의 강화, 기초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초·중학교의 환경 개선, 교육의 자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체계화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도덕, 국민윤리, 국사, 사회과 등의 교과서 개편과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공무원에 대한 이념교육, 연수 등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과학·기술교육이 진흥은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선진 산업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속의 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

1980년대에 들어 문교부는 국민정신교육과 함께 2대 시책으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면서 초·중등학교 기초과학 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노력했다. 1981년에는 초·중등 과학 교육과정에 과학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했으며, 교사의 지도 능력의 제고 및 실험·실습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에 우선했으며, 국민학교 과학 및 시청각 기교재 구입비를 확충하였다. 또한 과학·기술교육의 획기적인 진흥을 위해 “과학·기술교육 진흥 방안”을 수립, 추진하였다(문교부, 1984).

기초과학 교육의 내실, 과학 영재 교육의 심화, 실업교육의 충실 등을 통해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고 우수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통한 선진산업국가 건설에 노력을 기울였다.

(3) 전인교육의 충실

전인교육은 현대교육이 세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이념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과 조화로운 정서, 건전한 덕성이 모두 요구된다. 1960년대부터 경제성장으로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교육을 주요한 계층 이동 수단으로 간주하는 사회 의식 구조에 의해 점점 극심해지는 과외교육의 병폐는 1960년대 의무교육 완전취학을 성취,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 1974년의 고교 평준화 정책에 따른 중등교육 취학의 급격한 상승으로 더욱 심해져 갔다. 또한 급격히 상승한 고교진학률은 대학 진학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과열과외문제로 이어져 학교교육의 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학부모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암기위주의 입시준비에 치우쳐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교육이 소홀해지고 교육의 황폐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정치적인 불안과 계속되는 학원의 소요 등으로 강력한 교육개혁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지표인 민주·정의·복지의 사회 건설을 위한 정직하고 유능한 한국인 육성을 위해 적성과 능력본위의 교육기회 제공, 개성 존중의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대한교육연합회, 1980·1981).

(4) 평생교육의 확충

1970년 “세계 교육의 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강조된 평생교육의 교육 추세가 교육에 반영되면서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육기회의 확대, 성인교육,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시책으로는 사회교육유공자 표창, 노인교실·주부교실 운영, 공공도서관 확충 등과 계속교육 부문은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 특별학급 운영,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방송통신대학 운영 등을 포함하였다. 이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의무교육 제도의 내실화,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1980년대의 평생교육 이념의 강조는 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열린교육”의 이념에 대한 정착과 실현으로 이어졌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3. 날기 시작하다

제6공화국에서 문민정부에 이르는 시기는 새가 날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았다. 제6공화국은 본격적으로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문민정부는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하였다.

제6공화국은 본격적으로 교육자치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로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의 민주화 추진,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로 교육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의 시행에 앞서 교육현장의 의견과 각계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6공화국의 교육개혁은 교육정책자문회의를 통한 일상적인 개혁 정책 추진 방향을 기본 특색으로 수능능력시험체제로 대학입시를 전환하고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한 독학 학사관리, 교육전담 방송체제의 확립, 교육환경 특별회계 정책 확립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교직의 전문성 신장, 건전한 학풍 조성, 교육의 자율성 신장 및 평생교육을 강조하

는 시책으로 교육자치 및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강조하였다(정태범, 1996).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본격적 교육자치의 기틀 마련’으로 하였다.

21세기의 국제화·정보화·개방화와 교육자치제의 추진으로 교육의 자율화와 지방화, 다양화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수립되었다.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여 도적적인 미래지향적인 인간상 구현에 장학의 방향을 두었다.

문민정부가 “신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표방한 교육개혁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성 위주의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을 조화한 교육, 교육정보화 추진, 질 높은 교육 등을 중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정책 목표는 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교 ②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 사회 ③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복지 사회 ④ 지식 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⑤ 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 ⑥ 창의적인 학습과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육 환경 ⑦ 사이버 공간과 지구촌을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교육의 정보화 세계 ⑧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운영과 교육 행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1999). 또한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 문화 창조, 대학원 중심의 대학 육성, 열린교육,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평가 등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시기의 특징을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지향’으로 보았다.

가. 제6공화국(1988-1993) : 본격적 교육자치의 기틀 마련

제6공화국은 본격적으로 교육자치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로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의 민주화 추진,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로 교육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의 시행에 앞서 교육현장의 의견과 각계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다.

이러한 제6공화국의 교육개혁은 교육정책자문회의를 통한 일상적인 개혁 정책 추진 방향을 기본 특색으로 수학능력시험체제로 대학입시를 전환하고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한 독학 학사관리, 교육전담 방송체제의 확립, 교육환경 특별회계 정책 확립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교직의 전문성 신장, 건전한 학풍 조성, 교육의 자율성 신장 및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시책으로 교육자치 및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강조하였다(정태범, 1996).

(1) 교직의 전문성 신장

교육이 국가 원동력이라 하는 전제 하에 교육력 제고와 개혁을 추진해온 제6공화국에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의 핵심적 위치에서 존경받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을 위한 교원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의 질과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양적 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선별·임용으로 설정하고 교사양성·임용제도를 개선하였다(한국교육신문사, 1994). 교원 양성과 임용제도는 교사의 선발과 양성에서부터 교직에 대한 적성이나 인성을 고려해 선발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교육관 등을 확고히 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임용고사를 거침으로써 적극적인 면학 분

위기의 구성과 교직의 적격자를 선발하고 학력, 교직적성, 인성 등을 종합1 평가하여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춘 사람에게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교사 자격의 질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2) 건전한 학풍 조성

1980년대의 많은 혼란과 소요 속에서 학원의 안정화 추진 정책은 제6공화국에서도 계속되어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함께 고등교육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드러진 정책으로 대학 자율화 정책의 확대, 대학의 질 관리 정책의 강화, 대학의 균형 발전 정책의 시행 등으로 대학교육의 발전과 함께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시책들을 시행하였다. 또한 새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국민정신교육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초·중등교육에서는 도의교육의 내실, 통일안보교육의 강화,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추진하였으며 대학교육에서는 이념사상교육 강화를 개설 지원, 담당 교수의 연찬 이념사상 교육 자료의 개발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과 민주적 생활 태도 함양을 위한 학생 수련시설의 확충, 건전한 학생층 육성 및 면학풍토 조성을 위한 대학생 학·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국제교육의 추진(한국교육신문사, 1989·1990)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힘썼다. 학원의 안정화와 대학의 본질적 기능의 강화, 통일대비교육의 구체화로 민족주체성의 함양, 바른 생활 태도 가치관의 확립이 꾸준히 강조되었다.

(3) 교육의 자율성 신장

제6공화국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

정과 그에 따른 교원단체에 대한 단체 교섭, 협의권의 부여, 국·사범계 출신의 임용차별 철폐, 사학진흥 재단의 설립,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실시·운영,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과 세원의 확충, 대학인사제도의 개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전문대학의 육성,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 특수교육진흥책 추진, 교육과정 개정 과정의 개선 등의 시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인 성장과 질 향상을 위한 제반구조,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기술 교육체제의 발전과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교류협력의 증진,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로 교육의 민주화 지방화, 다양화 등은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시켰다.

(4) 평생 교육

제6공화국에서 평생교육의 두드러진 변화는 1990년부터 실시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 밖에 1990년부터는 교육방송의 운영 방식 개선과 방송통신대의 학과 설치를 확대하고 학사편입의 기회 부여, 개방대학의 설치 확대, 운영방식의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대학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 촉진하였으며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 계속 교육 기회의 확충,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육성 방안의 수립, 재외국민교육의 강화, 1992년의 남북한 동시에 UN 가입과 더불어 활발해진 국제학술교육 및 교육협력의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나. 문민정부(1993-1998) :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지향

21세기의 국제화·정보화·개방화와 교육자치제의 추진으로 교육의 자율

화와 지방화, 다양화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수립되었다.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여 도적적인 미래지향적인 인간상 구현에 장학의 방향을 두었다.

문민정부가 “신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표방한 교육개혁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성 위주의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을 조화한 교육, 교육정보화 추진, 질 높은 교육 등을 중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1) 학습자 중심의 교육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개념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절실했으며, 21세기를 주도해나갈 신한국인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표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 실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Edutopia)의 비전을 제시했다(박우진, 2002).

가정, 학교, 사회(직장)의 교육적 통합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학교의 평생 교육 기능의 확대, 시간제 학생등록제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학교의 전·편입학의 허용,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농어촌의 교육장화,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기회의 확대, 성인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원격교육의 지원체제 구축, 신대학의 시범운영 등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습자 주체가 되는 교육으로 입시 위주의 암기교육과 획일적인 평가 체제로 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무시된 채 규격화된 인간만이 양성된다는 교육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공급자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1995).

(2) 자율적인 학교 운영

5·31 교육개혁안은 초·중등학교 교육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획기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종래의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부터 벗어나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전환하고 학부모 및 학교 관련 인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열 과외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초·중등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학부모와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가하여 만드는 학교공동체의 구축과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 방법의 개발,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교사·학교장의 초빙제”의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3) 교육의 질적 향상

문민정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성과 소질을 살리고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육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교평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하여 교사와 학생의 영역이 포함되며, 평가와 행·재

정지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특성화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탄력적인 운영, 중학교 선택권의 부여,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권의 부여, 특수목적학교 학생선발 방식 등을 개선하였다. 또한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였다. 교육과정 및 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의 개발 평가와 학교 및 학교 운영을 평가, 공개하고 이를 행·재정지원과 책무성의 강조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4. 높이 날다

국민의 정부를 새가 높이 나는 단계라고 보았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교실 수업의 지원, 자율화·다양화, 새 학교 문화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국민의 정부(1998-2003) :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정책 목표는 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교 ②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 사회 ③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복지 사회 ④ 지식 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⑤ 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 ⑥ 창의적인 학습과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

육 환경 ⑦ 사이버 공간과 지구촌을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교육의 정보화 세계 ⑧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운영과 교육 행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1999). 또한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 문화 창조, 대학원 중심의 대학 육성, 열린교육,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평가 등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교실 수업의 지원, 자율화·다양화, 새 학교 문화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1)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공급자 위주의 폐쇄적인 교육을 일신하여 교원·학습·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여 열린 학교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였다. 200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대학입학 제도의 마련으로 교사중심·교과 성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여,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바탕 위에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산업구조와 인력수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 기술교육을 내실화하여 모든 국민이 계속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학습기회의 제공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였다.

(2)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국민기초 학력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 방안으로 교육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활용하기 편리한 교과서의 편찬 및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한 교원연수의 기회

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덕·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영어교육의 강화와 교육정보화 종합 계획을 마련해 다양한 교수·학습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하며,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초·중등 교원의 정원 증원, 수준별·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교실 및 교사 연구실 등의 확보, 국립대학의 교수 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 육성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3) 자율화·다양화 추구

국민의 정부는 공청회와 협의회 등의 다양한 채널과 협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된 “교직발전종합 방안”은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추진,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 평생·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및 활성화, 교육·문화교류를 통한 국제교육 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과 교육 자율화의 추진 등의 제반 시책으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4) 새 학교 문화 창조

1998년 10월 발표된 “새 학교 문화 창조” 정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와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필요성과 대학 지원 인구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위주,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전인 교육적 이상이 유명무실화되어 가는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학교 토론 문화 형성, 교수·학습과정의 개별화 실현, 다양한 체험 학습 수행,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제고,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이상으로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

단계	시대	역대 교육부 장관	장학방침의 특징	세부 내용
1. 날개를 펴다	제1공화국	1대 안호상 2대 백낙준 3대 김법린 4대 이선근 5대 최규남 6대 최재유	불안정 속의 작은 몸짓	1. 민족주의 교육 2. 민주주의 교육 3. 국방교육 4. 생산교육(과학진흥교육)
	제2공화국	7대 이병도 8대 오천석 9대 윤택중	질적 향상에 대한 꿈	1. 학원의 민주화 2. 교육의 질적 향상 3. 교육의 중립성 확보
2. 활주하다	제3·4공화국	10대 문희석 11대 김상협 12대 박일경 13대 이종우 14대 고광만	정치적 이념의 구현	1. 교육의 질적 향상 2. 국적 있는 교육의 추진

	시대	역대 교육부 장관	장학방침의 특징	세부 내용
2. 활주하다	제3·4공화국	15대 윤천주 16대 권오병 17대 문홍주 18대 권오병 19대 홍종철 20대 민관식 21대 류기춘 22대 황산덕 23대 박찬현 24대 김옥길	정치적 이념의 구현	3. 안보교육의 강화 4.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 5. 새마을 교육
	제5공화국	25대 이규호 26대 권이혁 27대 손계석 28대 서명원	심신 단련을 통한 전인·평생교육	1.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3. 전인교육의 충실 4. 평생교육의 확충
3. 날기 시작하다	제6공화국	29대 김영식 30대 정원식 31대 윤형섭 32대 조완규	본격적 교육자치의 기틀 마련	1. 교직의 전문성 신장 2. 건전한 학풍 조성 3. 교육의 자율성 신장 4. 평생 교육
	문민정부	33대 오병문 34대 김숙희 35대 박영식 36대 안병영 37대 이명현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지향	1. 학습자 중심의 교육 2. 자율적인 학교 운영 3. 교육의 질적 향상
4. 높이 날다	국민의 정부	38대 이해찬 39대 김덕중 40대 문용린 41대 송 자 42대 이돈희 43대 한완상 44대 이상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1.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2.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3. 자율화·다양화 추구 4. 새 학교 문화 창조

IV.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

장학의 궁극적 목적이 교실수업 개선이라고 할 때,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을 살펴보면 그 동안 변화해 온 장학지도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 연구자는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제1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까지의 장학방침은 교실수업 개선을 향해 조금씩 변화·발전해 왔다. 정부수립 이후 장학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일선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장학도 차차 갖추어져 갔으며, 제2공화국은 사회적 혼란으로 장학방침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으나 장학행정의 근대화를 모색하였다.

제3·4공화국 시대의 장학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단 장학팀을 구성하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 조언을 시작하였으며, 이론 보급이나 권장 형식에 그치지 않고 행정지시를 겸한 강한 실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장학이란 측면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였다. 그리고 교육방법을 연구·개선한다는 장학방침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제5공화국 시대의 장학방법은 과거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장학지표에서 교내장학, 동료장학, 자율장학, 자기장학 등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습지도의 충실이라는 장학방침이 나타났다.

제6공화국 시대는 교육자치의 실시에 맞추어 지역과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수업방법을 개선하여 교과별 장학협의를 기본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새 교육과정의 적용이 원활하도록 힘썼다.

문민정부 시대는 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

법의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원장학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장학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교실수업의 지원, 자율화·다양화, 새 학교 문화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였다.

1. 감독 위주의 권위적인 장학

가. 제1공화국 : 장학의 기틀 마련

제1공화국 시대는 문교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장학방침이 바뀌어 안정성이 결여된 면이 있다. 그러나 장학방침에 국민적 의지가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즉 국방교육, 반공교육, 국민사상의 통일 등의 어구에서 6·25 동란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겪으며 이를 이겨 나가려는 국민적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장학관은 수시로 전국이나 소관 지역을 순방·시찰하고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하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구체적인 장학 행정을 수행하였다. 즉, 상급 장학진이 직접 일선의 학교를 방문하고 현직연수 및 간행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장학이 차차 형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장학에서는 현장본위, 문제해결본위, 조언본위의 민주장학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또한 학교장들의 교내장학이 권장되어 학교 관리 방식의 개선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권위주의적인 장학활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여 진다(박우진, 2002).

제1공화국의 장학방침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과 생산교육을 강조하며 이를 교육과정에서 반영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교내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주어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자격을 갖춘 교사의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시기에 장학방침의 수립과 시달, 학사시찰, 장학위원제도의 운영, 연구학교의 지정 및 지도, 교육연구의 조장 및 연구소 설치 등을 통하여 상급장학진이 직접 일선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장학도 차차 갖추어져 갔으며, 현직연수, 저서 및 간행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장학도 차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1공화국의 장학방침을 정리하면 <표Ⅳ-1>과 같다.

<표Ⅳ-1> 제1공화국의 장학방침

시대	역대 문교부장관	장학방침
제1공화국 1948. 8. 15 - 1960. 4. 28	초대 안호상 1948. 8. 3 - 1950. 5. 3	없음
	2대 백낙준 1950. 5. 4 - 1952. 10. 29	<1951학년도> 1. 학행일치 교육 2. 일인일기 교육 3. 도의교육 <1952학년도> 1. 자치인의 양성 - 개인 2. 자유인의 양성 - 국민 3. 평화인의 양성 - 세계인
	3대 김법린 1952. 10. 30 - 1954. 4. 20	<1953학년도> 1. 도의교육, 생산진흥 2. 생활쇄신, 국방강화 3. 문화독립, 교육자치 <1954학년도> 1. 반공사상 함양, 정신무장으로 통일 독립에 매진 2. 과학기술진흥, 생산증강, 경제발전에 기여 3. 건강위생증진, 체위향상 - 국토방위에 공헌

	4대 이선근 1954. 4. 21 - 1956. 6. 7	<1955학년도> 1. 반공사상을 철저히 기르고 민주주의생활을 확립시킴으로서 통일 독립이 선봉이 되게 한다. 2. 과학기술을 진흥하여 생산을 증강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3. 건강교육을 철저히하여 학도의 체위를 향상 시킴으로서 국토방위의 간성이 되게 한다. <1956학년도> 1. 반공사상을 철저히 기르고 민주주의생활을 확립케 한다. 2. 과학 및 실업교육을 충실히 하여 생산기술을 체득케 한다. 3. 보건위생 및 체육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체위로 발육케 한다.
	5대 최규남 1956. 6. 8 - 1957. 11. 26	<1957학년도> 1. 도의교육을 진흥하여 민족의 얼을 고취케 한다. 2. 생산교육을 충실히 하여 자주적 경제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3. 건강교육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신체를 발육케 한다.
	6대 최재유 1957. 11. 27 - 1960. 4. 27	<1958 - 1959학년도> 1. 인격의 도야 및 조국혼을 진작하여 건실한 학도기풍을 세운다.(도의교육) 2. 과학기술을 연마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른다.(과학기술교육) 3. 건강위생에 유의하고 운동경기를 장려하여 건강한 신체를 갖게 한다.(건강교육)

나. 제2공화국 : 장학행정의 근대화 모색

제2공화국 시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당면 문제들의 해결에 시달리면서도 새로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지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였다. 4·19 혁명과 5·16 쿠데타에 의한 사회적 혼란으로 제대로 장학방침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려웠으나 학원의 민주화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필수교과와 생산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교부는 과거의 모든 독재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려 노력하였다. 즉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교육자치제의 강화, 학원 분규 수습 등을 장학방침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그러나 급진적인 개혁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학원의 무질서를 가져오고 말았다.

장학관은 시학의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직접 지도·조언을 위해 빈번히 학교를 방문하는 등 장학진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어 갔다. 그러나 혼란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장학행정의 근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2공화국의 사회적인 혼란한 상황이 반영되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강조하는 장학방침의 구현으로 학교를 통제하려 하였으며, 이는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속하게 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을 받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제2공화국의 장학방침을 정리하면 <표Ⅳ-2>와 같다.

<표Ⅳ-2> 제2공화국의 장학방침

시대	역대 문교부장관	장학방침
제2공화국 1960.4.28 - 1961.5.16	7대 이 병 도 1960. 4. 28 - 1960. 9. 27	<1960학년도> 1. 교육자치 강화 2. 학원분규 수습
	8대 오천석 1960. 8. 23 - 1961. 5. 2	<1961학년도> 1. 반공 및 국방교육의 강화 2. 생산교육의 강화 확충 3. 향토교육의 건설 4. 대학교육의 정비강화 5. 과학의 진흥 6. 민족문화의 창달 7. 국민체위의 향상
	9대 윤택중 1961.5.3 -1961.5.19	8대 때와 동일

다. 제3·4공화국 : 현장 출동 장학

제3공화국 시대는 장학목표를 내세우고 이 목표에 의하여 장학방침을 설정하여 왔는데 이는 장관이 바뀔에 따라 장학방침이 자주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제4공화국 시대는 10여년동안 문교부가 내세웠던 이 시대의 장학방침을 요약해 보면 주체성 교육과 국민정신교육의 강조 그리고 새마을 교육의 심화를 들 수 있다. 또 장학방침이 장관이 바뀔과 관계 없이 비교적 정착되었다. 이는 유신시대의 강력한 통치권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정책은 대통령의 정치이념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관이 바뀌어도 전 장관의 방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문교정책의 연속

성과 장기성을 실천으로 입증한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제4공화국 말기인 과도기에는 장학방침을 정하지 않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문교부의 장학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단장학 팀을 구성하여 직접 일선에 출장하여 세밀한 확인과 조언을 하였으며, 교육 이론의 보급이나 권장 형식에 그치는 장학이 아닌 필요한 규정, 행정지시를 겸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조성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었다.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장학방침을 수립하여 시·도, 시·군, 학교로 시달하여 지역 사회나 학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며 형식화되었던 장학의 방향을 지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2년과 1963년 전국의 초·중·고·교육대학에서 실시한 학사지도 검열에서는 지시·명령과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장학으로 장학 본연의 업무를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지도 방법 면도 미흡하였다. 또한 지방 장학행정의 운영도 장학직의 정원을 충분히 책정할 만한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일선학교의 지도·조언보다는 사무적인 업무에 치중하여 관리행정과 감독 위주의 장학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964년부터는 학사지도 검열이란 용어에서 집단 지도로 개칭하여 지도 장학의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습 사태에 직결되는 전문적 지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장학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단 장학팀을 구성하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 조언을 시작하였으며, 이론 보급이나 권장 형식에 그치지 않고 행정지시를 겸한 강한 실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장학이란 측면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였다. 또한 교육계 안에서 각 방면의 전문단체, 교직원체들이 장학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를 보완하는 협력관계가 조성되기도 했다(한국교육무제연구소, 1974). 1968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면서 장학기능은 이념의 침투와 생활화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정치적 강제

성을 근간으로 하였기 때문에 권위적인 장학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3·4공화국은 국가의 강력한 통치를 위해 국적 있는 교육, 안보교육, 국민교육현장의 이념 구현, 새마을 교육 등으로 학교 교육에서의 통제를 강화한 시기였다. 국가의 시책과 정책이 교육과정과 교과에서 강조하는 장학 방침은 학교의 특색 있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극히 제한하였다. 1964년 장학방침에 ‘교육방법을 연구개선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발굴 신장시킨다.’는 것이 있다. 그 전까지의 장학방침에서 교육방법의 개선이라는 것은 없었다. 교수-학습의 면에서 언급한 장학방침으로는 처음 등장한 것이다. 제3·4공화국의 장학방침을 정리하면 <표Ⅳ-3>과 같다.

<표Ⅳ-3> 제3·4공화국의 장학방침

시대	역대 문교부장관	장학방침
제3공화국 1961.5.16 -1972.12.26	10대 문희석 1961. 5. 20 - 1962.1.8	<1961학년도 : 5.16후> 1. 정신혁명 2. 교육혁명 3. 교육행정쇄신 4. 생산기술, 과학교육강화 5. 향토 및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
	11대 김상협 1962. 1.9 - 1962.10.14	<1962학년도> 1. 향토학교의 건설 2. 실업교육의 진흥
	12대 박일경 1962.10.15 - 1963.3.15	11대와 동일

	13대 이종우 1963.3.16 - 1963.12.16	<1963학년도> 1. 향토학교의 건설과 실업교육의 진흥 2. 승공도의교육의 철저와 예절의 준수 3. 보건체육교육의 강화 4. 생산기술의 연마 5. 독서교육을 통한 자율적 학습활동의 조정 6. 특별활동의 효율적 운영 7. 학교운영의 실효거양 8. 연구학교 적극지도
	14대 고광만 1963.12.17 - 1964.5.10	<1964학년도> 1. 승공도의를 양양하고 근면협동하는 기풍을 진작한다.(민주학원의 건설) 2. 정의교육의 기틀 위에 과학교육을 중시하고 생산기술을 연마한다.(생산기술의 연마) 3. 교육방법을 연구개선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발굴 신장시킨다.(교육방법의 개선)
	15대 윤천주 1964. 5. 11 - 1965. 8. 26	<1965학년도> 1.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의 추진 - 건설적 창의적 생활태도의 육성 - 생산기술의 연마 - 합리적 경제생활의 실천 2. 건전한 국민도회의 확립 - 자주자립정신의 확립 - 승공, 도의의 양양 - 협동, 단결의 강화
	16대 권오병 1965. 8. 27 - 1966 9. 25	<1966학년도> 1. 민족주체성의 확립 2. 생산하는 교육의 추진 3. 건전한 학원의 조성

	17대 문홍주 1966. 9. 26 - 1968. 5. 20	<1967학년도> 1. 건전한 학원의 조성 2. 생산하는 교육의 추진 3. 민족주체성의 확립 <1968학년도> 1967학년도와 동일함.
	18대 권오병 1968. 5. 21 - 1969. 4. 10	<1969학년도> 1. 윤리관의 확립 2. 산교육의 추진 3.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4. 한글전용의 추진 5. 사도의 확립
	19대 홍종철 1969. 4. 11 - 1971. 6. 3	<1970학년도> 1. 국민윤리의 실천 2. 교원의 권위향상 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1971학년도> 1. 국민정신의 진흥 2. 생산하는 교육의 실천 3. 새 교육 풍토의 조성

	20대 민관식 1971.6.4 - 1974. 9. 17	<1972학년도> 1. 안보교육체제의 강화 2. 새 가치관의 확립 3. 과학기술 교육의 철저 4. 보건교육의 진흥 5. 교직의 전문성 제고 6. 향토학교의 건설과 교육의 사회화
제4공화국 1972.12.27 -1980.9.1	20대 민관식 (위와 동일)	<1973학년도> 1. 민족주체성의 함양 2. 유신교육체제의 확립 3. 새마을교육의 심화 4. 보건체육교육의 강화 5.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1974학년도> 1. 국적있는 교육의 신장 2. 유신교육체제의 확립 3. 새마을교육의 심화 4.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 보건체육교육의 충실
	21대 류기춘 1974. 9. 18 - 1976. 12. 3	<1975학년도> 1. 국적있는 교육의 신장 2. 유신교육체제의 확립 3. 새마을 교육의 심화 4. 과학기술교육의 충실 5. 보건, 체육교육의 충실 <1976학년도> 1. 국적있는 교육의 신장 2. 교육유신의 심화 3.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 4.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 보건체육교육의 충실

	22대 황산덕 1976. 12. 4 - 1977. 12. 19	<1977학년도> 1.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2. 교육과정운영의 내실 3.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 4.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 보건체육교육의 충실
	23대 박찬현 1977. 12. 20 - 1979. 12. 13	<1978학년도> 1. 국민정신교육의 심화 2. 교육과정운영의 내실 3. 새마을 정신의 생활화 4.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5. 보건체육교육의 충실 <1979학년도> 1978학년도와 동일
	24대 김옥길 1979.12.14 - 1980. 5. 21	<1980학년도> ※ 장학방침을 별도로 시달하지 않고 「장학의 방향」만 제시하여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함. <장학의 방향> * 국민교육현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운영 *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인격을 완성 * 민주시민으로서 질적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생활능력 배양 * 국가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

2. 지원·조장 중심의 장학

가. 제5공화국 :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변모

이 시기에는 장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문헌들이 연구 발간되고, 장학의 방법도 과거 교육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장학지표에서 교내 장학, 동료장학, 자율장학, 자기장학 등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시기의 장학지도는 점차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도·조언의 역할로 변해가고 있으며 각급 학교장이 자주·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감독 위주의 지도를 탈피하여 획일적인 지도 관점이나 평가 척도에 의한 문서 획일 지도를 지양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의 자료 제공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의 장학지도 계획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교육계획의 수립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여 장학의 본질적인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지원·조장 중심의 장학지도를 실시하였다. 장학지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종합장학지도, 교과별 장학지도, 개별 장학지도, 요청장학지도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장학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1984년도장학의 방향에 학습지도의 충실이라는 것이 보인다. 1964년의 교육방법 개선 이후로 두 번 째 보이는 교수-학습면에 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의 장학방침을 정리하면 <표Ⅳ-4>와 같다.

<표Ⅳ-4> 제5공화국의 장학방침

시대	역대 문교부장관	장학방침
제5공화국 1980. 9. 1 - 1988. 2. 24	25대 이규호 1980. 5. 22 - 1983. 10. 14	<1981학년도> 1.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2. 기초교육의 내실 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4. 전인교육의 충실 <1982학년 장학의 방향> 1.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학교가 교육계획을 창의적으로 수립하여 책임 있는 교육의 추진 2. 감독위주 탈피와 우수사례 발굴 보급 <1983학년 장학의 방향> 1. 민주, 복지, 정의의 새 사회건설을 위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육성에 목표를 두고 7:30 교육개혁의 지속화와 2천년대에 대비하는 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 전인교육의 충실 - 평생교육의 확충 에 장학의 방향을 두었다.
	26대 권이혁 1983. 10. 15 - 1985. 2. 18	<1984학년 장학의 방향> 1. 국민정신교육의 심화 2. 학교 새마을교육의 활성화 3. 전통 윤리 재건 4. 학습지도의 충실 5. 자주, 자율적인 생활태도 함양 6. 전전 교육풍토 조성

	27대 손제석 1985. 2. 19 - 1987. 7. 13	<1985학년 장학의 방향> 1. 학교교육의 정상화 2. 국민정신교육의 생활화 3.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 정착의 해 4. 생활지도 철저 <1986학년 장학의 방향> 1. 유아교육여건 개선과 전인교육 2. 국민정신교육 9대 덕목 실천지도 3. 통일안보 및 이념교육 철저 4. 학교 새마을교육의 효율적 추진 5.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6. 86아시안 게임의 적극 참여와 88올림픽 준비 철저 <1987학년 장학의 방향> 1. 국민정신교육의 내실을 위해 이념교육의 충실과 지도방법의 개선 2. 경로효친과 국민예절 교육 3. 새마을 정신교육의 내실 4.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기초 교육 충실 5. 과학기술교육의 효과 극대화 6. 올림픽 대비교육
	28대 서명원 1987. 7. 14 - 1988. 2. 24	교육개혁개선안 즉,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사학정책의 보완 등에 기대를 걸었으나 88년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물러남.

나. 제6공화국 : 지역과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의 활성화

제6공화국은 교육자치의 실시에 맞추어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격려 중심의 장학업무를 추진하였다. 교육정책과 집행과정을 개방하여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며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의 운영을 충실하게 하게 하기 위해 학교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구현된 문제점을 협의 탐색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의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 12월 문교부가 ‘교육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제6공화국은 거센 민주화의 물결에 휘말린 정치적·사회적 격동기로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진전으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제6공화국은 권위주의적이고 지시나 감독의 장학보다는 교육자치의 실시에 맞추어 장학활동을 지원·격려 중심으로 하여 요청장학협의와 지역장학협의회, 민단장학협의회 등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또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 탐색함으로써 장학의 본질적 기능을 추구하는 데 노력하였다. 장학의 핵심은 수업장학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하여 교과별 장학협의를 기본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새 교육과정의 적용이 원활하도록 힘썼다.

제6공화국의 장학방침은 교육에서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인사행정, 시설확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의 특색이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운영보다는 획일적이고 중앙집권화의 영향이 줄어들지 않아 학교의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제6공화국의 장학방침은 <표Ⅳ-5>와 같다.

<표Ⅳ-5> 제6공화국의 장학방침

시대	역대 문교부장관	장학방침
제6공화국 1988. 2. 25 - 1993. 2. 24	29대 김영식 1988. 2. 25 - 1988. 12. 4	<1988학년도> 1. 장학활동의 개선 2. 학교교육의 정상화 3. 건전한 가치관 확립 4. 교과지도의 충실 5. 올림픽 참여교육의 철저 6. 생활지도의 충실 7. 교육과정 수정 8. 교과용 도서의 개편
	제30대 정원식 1988. 12. 26 - 1990.12. 26	<1989학년도> 1. 장학활동의 활성화 2. 교육발전과제 연구추진 3.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4. 민족 자존의식 고취 5. 기초교육의 충실 6.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 7. 즐거운 교실 만들기 8. 바른생활 태도 확립 <1990학년도> 1. 학교교육의 쇄신 2.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 3. 교육정상화 추진 4. 민주시민 자질의 함양 5. 민족 자존의식의 함양 6. 통인안보의식의 함양 7.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8.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

	31대 윤형섭 <교육부로 개칭됨> 1990. 12.27 - 1992. 1. 22	<1991학년도> 1.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되면서,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이 초·중등교육의 자주성 회복과 도덕적,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 민주시민의 육성 2. 도덕성의 함양(바른생활 습관 형성) 3. 교육행정의 민주화 4. 평생교육 기회의 확충 5. 교단 지원 체제의 확립
	32대 조완규 1992. 1. 23 - 1993. 2. 24	<1992학년도> 1. 민주시민 자질 및 도덕성 함양 교육의 내실화 2. 통일 대비 교육의 강화 3.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4. 과학기술 교육의 충실 5. 생활지도의 철저 6. 존경받는 교원상 정립

다. 문민정부 :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문민정부의 장학 업무 수행에서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정책 개발 및 기획 기능을 중심으로 방향 설정과 질 관리에 주력하며, 행정적인 교육청 장학에서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청의 장학은 학교의 장학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조장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종래의 종합장학을 지양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과 지역별 자율장학 활

등을 강화하며 장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학요원들의 장학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학과 관련한 제반 영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육청의 장학도 담임장학, 요청장학, 특별장학, 표집장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교과 연구회의 활성화와 교내자율연수, 교사 자율연수를 강조하였다.

문민정부에 들어선 1993년의 장학방향으로는 전인교육의 지속적 추진과 학교교육의 정상화 실현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학생 생활지도 강화, 스승의 자리찾기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원장학에 힘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도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의 장학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을 키워내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기술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자긍심을 갖는 교직사회의 구현, 생활지도의 철저를 기본방향으로,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미래 지향적인 인간상을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후 교육부는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 초·중등교육을 운영하여 첫째, 선택과목의 확대와 수준별 이동식 수업의 확대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 토대마련, 둘째, 김인정 교과서를 확대하고 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교과서 제작에 민간의 자율·창의성 및 경쟁보장, 셋째, 학생의 다양한 활동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시행, 넷째, 학교현장에서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원의 교과교육 연구 활동 지원, 다섯째,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로 학교 밖

과외를 교내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여섯째,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운영, 일곱째, 부모의 희망과 학교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입학율 5세아에게도 부분 허용, 여덟째, 평준화 지역에서의 초·중등학교 학생선발 방식을 ‘선복수 지원, 후추첨 제도’로 개선하여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부여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문민정부의 장학지도 방침은 지시나 감독보다는 협의와 안내 위주의 장학형태로 단위학교와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돕는 장학지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장학으로 장학행정의 방침은 변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장학담당자가 장학 본연의 업무보다는 행정적인 공문의 처리나 잡무 등으로 연구와 연수의 기회가 적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장학지도의 방법보다는 학교교육에 대한 관리와 확인 위주의 감독적 장학이 계속 이루어졌다.

문민정부는 학습자와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방침을 강조하였으나, 재정과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장학방침에 의한 확인 관리위주의 장학방법을 통해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989년 및 1990년 장학방침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이라는 것이 있다. 장학방침에 교수-학습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되면서 장학방침에는 교단 지원 체제의 확립이 나온다. 가르치는 현장에 한 발 다가선 듯한 느낌을 주고,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장학의 본질에 가까이 간 것 같다. 문민정부의 장학방침은 <표Ⅳ-6>과 같다.

<표 IV-6> 문민정부의 장학방침

시대	역대 교육부장관	장학 방침
문민정부 1993. 2. 25 - 1998. 2. 24	33대 오병문 1993. 2. 25 - 1993. 12. 21	<1993년 장학방향> 1. 학교 내 자율장학의 활성화 2. 민주시민 교육, 통일교육 3.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4.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5. 학생생활지도 강화 6. 스승의 자리 찾기 실현
	34대 김숙희 1993. 12. 22 - 1995. 5. 11	<1994년 교육정책의 강조점> 1. 대학자율성 제고 2. 관리체제의 혁신
	35대 박영식 1995. 5. 16 - 1995. 12. 20	<1995년 교육정책의 강조점> 1. 교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2. 세계화 시대의 교육
	36대 안병영 1995. 12. 21 - 1997. 8. 5	<1996년 교육정책> ※ 교육개혁추진 방향과 과제에 초점을 두고 고서 제1차 교육개혁안으로 제시된 48개 과제 중 33개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 특히 강조된 과제 - 1. 학교의 전면입학 기회확대 2. 학부 없는 단설 전문대학원의 설립 운영 3. 학교장과 교사초빙제의 시범적 실시 4. 교과서 발행, 검정, 채택제도의 획기적 개선 5.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하향조정 6.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존중 7. 교육 재정 GNP 5% 확보

문민정부 1993. 2. 25 - 1998. 2. 24	37대 이명현 1997. 8. 6 - 1998. 3. 2	<1997년 교육정책> ※ 교육개혁이 학교에서 뿌리를 내려 21세기에 대비한 능력 있는 인간교육이 되도록 하는 업무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 추진 업무 - 1.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영어교육 실시 2. 초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 3. 학습자 중심의 특기별 학급의 시범적 운영 4. 학습자 능력에 맞는 열린 학습의 활성화 5. 소질·적성계발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 6. 학부모의 과외비 절감 7.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 8. 학교중도탈락자 복교추진 9. 학생봉사활동의 정착 10. 유치원 자원봉사자를 보조교사로 활용 11. 유아의 종일반 운영 12. 컴퓨터를 활용한 유아교육 자료개발 13. 특수교육 서비스의 제공
---	--	--

3. 협의·안내 위주의 장학

가. 국민의 정부 : 교실수업 개선의 지원

국민의 정부는 1998년 3월 1일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

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에 중점을 두는 장학의 업무를 수행한다.

1998년 초·중등교육법이 발효된 후 교육부는 주요 정책 수립시 시·도교육청간 협의를 활성화하고,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할 때에도 협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장학도 협의 중심의 장학을 활성화하고,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위한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와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과 교실수업의 개선, 자율화·다양화, 새학교 문화의 창조를 강조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경제 논리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감축을 위한 교육개혁은 많은 비판과 갈등을 겪었다.

장학지도는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초점에 두는 수업지도성과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장학, 사이버 장학 등으로 방법이 변모하면서, 장학협의로 용어가 변하였다.

장학의 방법도 교육정책의 추진상황이나 일선학교 지원 현황을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학을 실시하며 적발이나 문책위주의 장학활동보다는 협의나 대안 제시, 장학 능력을 높이는 협의 중심의 지원장학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 평가 위주의 장학과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교육활동, 교육시책의 확인을 중심으로 하는 장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 장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국민정부의 장학방침은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현되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과 재량시간의 설정, 학교회계제도의 실시 등으

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학교의 행사 강조, 학교 평가 등을 통해 학교를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우진, 2002).

국민의 정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면서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월에는 종전의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통합하여 학교정책과, 교육과정 정책과, 평가관리과만 두고, 교원정책, 양성, 연수, 복지는 교원정책심의관하에 두었다. 이로서 장학의 기능은 더욱 축소되기에 이르렀다(강영삼, 2001).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교실수업의 지원, 자율화·다양화, 새 학교 문화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하며,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초·중등 교원의 정원 증원, 수준별·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교실 및 교사 연구실 등의 확보, 국립대학의 교수 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 육성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국민의 정부 장학방침은 <표IV-7>과 같다.

<표IV-7> 국민의 정부 장학방침

시대	역대 교육부장관	장학방침
국민의 정부 1998. 2. 25 - 2003. 2. 24	38대 이해찬 1998. 3. 3 - 1999. 5. 24	1.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발족 2. 교원정년 단축 3. 교원노조 합법화 4.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5. 교육비전2002 새로운 학교문화창조 6. 교원성과급제 도입

39대 김덕중 1999. 5. 24 - 2000. 1. 14	1. 두뇌한국 21 사업(BK-21) 2. 학교운영위원회설치 의무화
40대 문용린 2000. 1. 14 - 2000. 8. 7	1. 과열과외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2. 실업계고교 육성대책 수립 시행 3. 정보화교육강화방안 발표 4. 수능등급제의 실시 5.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41대 송자 2000. 8. 7 - 2000. 8. 31	없음
42대 이돈희 2000. 8. 31 - 2001. 1. 29	1.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2.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3.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발족
1대(부총리) 한완상 2001. 1. 29 - 2002. 1. 29	1. 교직원발전종합방안 2.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 실시 3. 실업교육 육성방안 4.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 5. 교원성과급제 실시 6. 기초학문육성 종합계획 7.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8.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 9. 교육인적자원부의 출범(부총리급)
2대(부총리) 이상주 2002. 1. 29 - 2003. 3. 6	1.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2. 중학교 의무교육의 연차적 확대 3. 공교육 내실화 방안 4. 고교평준화 확대실시 및 관계법령 개정

V.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의 방향

지금까지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과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논의된 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의 방향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1. 감독 위주의 장학에서 지원·협의 중심의 장학으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장학의 목적은 교육활동 전반의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가르치는 활동에 있어서의 질을 높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학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새로운 교육이론의 적용 등을 통해 교수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학은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보다는 행정위주의 장학, 검열 위주의 획일적인 장학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장학활동은 교육행정 위주 보다는 가르치는 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교단 지원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학담당자들이 본질적인 장학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잡무 등 비본질적인 장학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장학의 본질적 의미에 합당한 장학협회가 실시되어야 한다. 장학은 ‘공부나 학문을 장려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장학이라는 말에는 supervision이라는 어휘가 갖는 감시, 감독, 또는 통제와 관련된 전제적 의미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으며, 티잡을 데 없이 이상적인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을 보면 지시, 감독 위주의 장학에서

점차 변화하여 지원장학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도 장학지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시나 감독보다는 협의와 안내 위주의 장학 형태로 단위 학교와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장학’이란 의미 그대로 장학지도가 실시된다면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목표는 자연적으로 달성되리라고 본다. 장학담당자와 교사간에 합일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장학에 임할 때 진정한 장학협의를 될 것이다.

2. 교육청 중심의 장학에서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내 자율장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야 한다. 학교 교육의 질적인 발전은 학교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내 자율장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보조와 교사 스스로의 자각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장학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내 자율장학을 통하여 교사는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거나 교수 기술을 발전시키며,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면서 제반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장학의 본질에 알맞은 수업장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실수업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알고, 단위 학교가 주체가 되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들이 공통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 교사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의 환경이며, 시대적 전개 과정이며, 새로운 창조와 함께 형성되어가고 있는 문화의 일종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수업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한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학습 방법의 인식, 정보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장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교수-학습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첫째, 순차적 학습에서 하이퍼미디어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과서가 학습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학습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교과서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보는 식의 순차적 접근이다. 그러나 N세대가 정보를 접하는 유형은 다르다. 이들은 한꺼번에 대여섯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정보를 찾게 되면, 이들은 서버에 접속해 보거나 여러 가지 정보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정보원을 찾아 들어간다.

둘째, 주입식교육에서 참여와 발견의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미리 가공된 정보를 싫어하고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듯이 학습은 체험하는 과정이다. 그렇다고 학습 환경이나 교육 과정이 무계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혹은 학생들 스스로 교육내용을 계획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가능하다.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한 교수-학습 원리는 학습자의 사고활동을 촉진함으

로써 지식의 능동적 활용과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강조한다.

셋째, 교사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습자 교육은 학습자 능력, 학습방식, 사회적 맥락, 그리고 기타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평가하는 활동으로 시작된다. 학습자 중심 교육방식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의 개성에 맞춘 학습경험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토론이나 논쟁, 조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고 서로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넷째, 주입식교육에서 학습방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식의 폭발적 증가는 고등교육 교과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령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학생이 졸업할 때쯤 되면 그가 배운 지식의 절반 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주입식 교육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 N세대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이다. 학생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획일화된 교육에서 맞춤형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취향, 배경, 특성, 연령, 사회성들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컴퓨터는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매체이다. 아이들이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토론도 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남의 의견을 듣기도 하며, 보통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보다 상대방 학생과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여섯째, 재미없는 학습에서 재미있는 학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다수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장소로 전락해 버린 오늘날 학교를 재미있는 새로운 학교문화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 재미는 교육의 본질을

이루고 있고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상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일이다.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공부하는 재미가 붙어 학생들은 학습동기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배움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일곱째,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교사에게 촉진자로서의 교사로 전환되고 있다. 교사는 자료 찾기에 도움을 주고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사는 일방적 전달자가 아니라 사회적 학습 과정을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지식을 쌓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협동심과 분석력, 관찰력, 발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새로운 도구의 사용법과 접근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현대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지식과 정보의 획득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교육을 받을 의무를 명시하였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10년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배우게 될까? 그것은 우리 교사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에 비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교사됨의 임무로 학생들을 열성으로 가르쳤을 때 학생들은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고, 지식을 얻는 바른 방법을 학습하였을 때 학생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의 책임은 실로 너무나 크다. 그리고 그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선 교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러한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 육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김종길, 2002).

이상과 같은 사상적 기반 위에, 인간 존중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학생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진을 계속하는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교수-학습 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실수업을 개선하여 모든 학습자가 완전학습에 이를 수 있도록 학생 교육에 힘을 써서, 기본 교육에 충실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4.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의 질 제고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교사상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는 빠른 속도로 창조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생활도 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 교사의 가르치는 자세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기존의 습관, 제도, 도덕, 가치관이 변화해 가면서 교육관 교직원도 변화가 생기고 기대되는 교사상도 변하고 있다. 올바른 인성을 지닌 교사, 전문성을 갖고 자율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교사,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기자재를 익숙하게 다루는 교사,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맡은 책임을 완수하는 교사, 거시적인 안목(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사가 기대되는 교사상이다(주영갑, 2002).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 즉,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의 방향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특징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정부까지 장학방침을 살펴 본 결과, 그 특징을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4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새의 비상에 비유하여 ‘날개를 펴다, 활주하다, 날기 시작하다, 높이 날다’로 명명하였다.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대는 새가 날개를 펴는 단계라고 하였다. 제3·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 시대는 날기 전 활주로를 달리는 단계, 제6공화국에서 문민정부까지는 날기 시작하는 단계, 국민의 정부는 높이 나는 단계라고 보았다. 이렇게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을 단계별로 보게 된 것은 장학방침의 변화를 살펴 볼 때, 새가 바로 날아갈 수 없듯이 우리나라 장학방침도 어느 순간 궤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50여 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1) 날개를 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정

부조직법이 공포되고 문교부가 발족되면서 장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는 문교부 장관의 잦은 경질로 장학목표의 변동이 심하여 문교행정의 안정성의 결여된 면도 있으나, 사회적 요구의 변동에 적응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바도 크다. 그래서 제1공화국 장학방침의 특징을 ‘불안정 속의 작은 몸짓’으로 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에 나타난 특징은 민족의식과 반공사상을 도입하기 위한 민족주의 교육, 국방교육, 민주주의 교육, 교육현장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두된 도의 교육,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부응하는 생산교육과 과학 진흥 교육이 장학방침으로 강조되었다.

제2공화국의 장학방침은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의 중립성 확보(손인수, 1994)를 내세워 교육의 정상화에 힘썼으며,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교육자치체의 강화, 학원 분규의 수습 등을 위해 노력했으나 급진적 개혁으로 학원의 무질서를 가져 왔다(정태범, 1998). 제8대 오천석 문교부 장관은 교육의 질적인 향상 정책 등을 펼치고자 하였다. 해방 이래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었던 생산, 과학, 체위향상, 국민 문화 등 교육의 질적 향상과 고등교육의 질적 정비에 대한 착상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한기연, 1969). 그래서 제2공화국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2) 활주하다

5·16 쿠데타 이후 수립된 군사 정권은 강력한 통치 수단을 통해 전 영역에서 경제 성장 제일주의를 표방하였다. 교육은 이러한 정치적 이념을 국민교육을 통해 인식시키는 역할과 경제 성장을 주도할 인력을 개발하는 역

함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제2경제” 이념이 등장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 교육론, 국적 있는 교육론이 대두되었고 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되었다.

이 시기의 장학방침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정치적·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 향토학교의 건설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 교원 연수와 교육자 자질의 향상,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 안보교육의 강화, 민족주체성의 강조 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정치적 이념의 구현’으로 하였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교육개혁과 장학의 방침을 요약하면 교육의 질적 향상, 국적 있는 교육, 안보교육의 강화, 국민교육헌장이념 교육, 새마을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5공화국의 출범 직후 2000년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전인교육의 충실, 평생교육의 확충의 4대 지표를 제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문교부가 매년 초 작성하는 “주요업무계획”에서 문교부의 시책 방향과 문교지표가 국가수준의 교육지표 역할을 하여왔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심신 단련을 통한 전인·평생교육’으로 하였다.

(3) 날기 시작하다

제6공화국은 본격적으로 교육자치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로 교육의 본질 추구, 교육의 민주화 추진,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기회의 확대로 교육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제도의 개선이나 정책의 시행에 앞서 교육현장의 의견과 각계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본격적 교육자치의 기틀 마련’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6공화국의 교육개혁은 교육정책자문회의를 통한 일상적인 개혁 정책 추진 방향을 기본 특색으로 수학능력시험체제로 대학입시를 전환하고 고등학교 이후 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한 독학 학사관리, 교육전담 방송체제의 확립, 교육환경 특별회계 정책 확립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교직의 전문성 신장, 건전한 학풍 조성, 교육의 자율성 신장 및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시책으로 교육자치 및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강조하였다(정태범, 1996).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21세기의 국제화·정보화·개방화와 교육자치제의 추진으로 교육의 자율화와 지방화, 다양화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수립되었다.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여 도적적인 미래지향적인 인간상 구현에 장학의 방향을 두었다.

문민정부가 “신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표방한 교육개혁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성 위주의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을 조화한 교육, 교육정보화 추진, 질 높은 교육 등을 중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지향’이라고 하였다.

(4) 높이 날다

국민의 정부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 정책 목표는 ① 배우는 즐거움으로 활기가 넘치는 학교 ②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 사회 ③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복지 사회 ④ 지식 강국의 초석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⑤ 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및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학습 사회 ⑥ 창의

적인 학습과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쾌적한 교육 환경 ⑦ 사이버 공간과 지구촌을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교육의 정보화 세계 ⑧ 국민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 운영과 교육 행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교육부, 1999). 또한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 문화 창조, 대학원 중심의 대학 육성, 열린교육, 시·도교육청 평가, 수행평가 등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교실 수업의 지원, 자율화·다양화, 새 학교 문화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을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이라고 보았다.

나.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

장학의 궁극적 목적이 교실수업 개선이라고 할 때,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에 나타난 교실수업 개선을 살펴보면 그 동안 변화해 온 장학지도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 연구자는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의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다.

(1) 감독 위주의 권위적인 장학

제1공화국에서 제3·4공화국까지의 장학을 살펴보면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감독 위주의 권위적인 장학이라고 본다. 그 속에서 제1공화국은 장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제2공화국은 장학행정의 근대화를 모색하였으며, 제3·4공화국은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데 주력하며 장학을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이 공포되고 문교부가 발족되면서 장학의 기틀이 마련

되었다. 제1공화국 시대의 장학에서는 현장본위, 문제해결본위, 조언본위의 민주장학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또한 학교장들의 교내 장학이 권장되어 학교 관리 방식의 개선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권위주의적인 장학활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여진다. 이 시기의 장학방침의 수립과 시달, 학사시찰, 장학위원제도의 운영, 연구학교의 지정 및 지도, 교육연구의 조장 및 연구소 설치 등을 통하여 상급 장학진이 직접 일선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장학도 차차 갖추어져 갔으며, 현직연수, 저서 및 간행물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장학도 차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2공화국 시대는 사회적 혼란으로 제대로 장학방침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으나 학원의 민주화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필수교과와 생산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교육자치제의 강화, 학원 분규 수습 등을 장학방침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장학관은 시학의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직접 지도·조언을 위해 빈번히 학교를 방문하는 등 장학진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어 갔다. 그러나 혼란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장학행정의 근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박우진, 2002).

제3·4공화국 시대의 문교부의 장학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단장학 팀을 구성하여 직접 일선에 출장하여 세밀한 확인과 조언을 하였으며, 교육 이론의 보급이나 권장 형식에 그치는 장학이 아닌 필요한 규정, 행정지시를 곁했으며, 구체적인 조건조성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었다. 1962년과 1963년 전국의 초·중·고·교육대학에서 실시한 학사지도 검열에서는 일선 학교의 지도·조언보다는 사무적인 업무에 치중하여 관리행정과 감독 위주의 장학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1964년부터는 학사지도 검열이란 용어에서 집단 지도로 개칭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학습 사태에 직결되는 전문적 지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장학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단 장학팀을 구성하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 조연을 시작하였으며, 이론 보급이나 권장 형식에 그치지 않고 행정지시를 겸한 강한 실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장학이란 측면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였다. 또한 교육계 안에서 각 방면의 전문단체, 교직원단체들이 장학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를 보완하는 협력관계가 조성되기도 했다(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1964년 장학방침에 ‘교육방법을 연구개선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발굴 신장시킨다.’는 것이 있다. 그 전까지의 장학방침에서 교육방법의 개선이라는 것은 없었다. 교수-학습의 면에서 언급한 장학방침으로는 처음 등장한 것이다.

(2) 지원·조장 중심의 장학

제5공화국에서 문민정부까지의 장학을 지원·조장 중심의 장학으로 보았다. 감독 위주의 권위적인 장학에서 변화한 단계이다. 제5공화국 시대에는 장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많은 문헌들이 연구 발간되고, 장학의 방법도 과거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장학지표에서 교내장학, 동료장학, 자율장학, 자기장학 등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시기의 장학지도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지도·조연의 역할로 변해가고 있으며 각급 학교장이 자주·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학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시·감독 위주의 지도를 탈피하여 획일적인 지도 관점이나 평가 척도에 의한 문서 획일 지도를 지양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조연의 자료 제공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의 장학지도 계획에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교육계획의 수립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여 장학의 본질적인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지원·조장 중심의 장학지도를 실시하였다. 장학지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종합장학지도, 교과별 장학지도, 개별 장학지도, 요청장학지도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장학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1984년도장학의 방향에 학습지도의 충실이라는 것이 보인다. 1964년의 교육방법 개선 이후로 두 번 째 보이는 교수-학습면에 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제6공화국은 거센 민주화의 물결에 휘말린 정치적·사회적 격동기로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진전으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교육자치의 실시에 맞추어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격려 중심의 장학업무를 추진하였다. 권위주의적이고 지시나 감독의 장학보다는 교육자치의 실시에 맞추어 장학활동을 지원·격려 중심으로 하여 요청장학협의회와 지역장학협의회, 민단장학협의회 등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또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 탐색 및 탐색을 함으로써 장학의 본질적 기능을 추구하는 데 노력하였다. 장학의 핵심은 수업장학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하여 교과별 장학협의를 기본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새 교육과정의 적용이 원활하도록 힘썼다. 1989년 및 1990년 장학방침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이라는 것이 있다. 장학방침에 교수-학습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으로는 처음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칭되면서 장학방침에는 교단 지원 체제의 확립이 나온다. 가르치는 현장에 한 발 다가선 듯한 느낌을 주고,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장학의 본질에 가까이 갔다고 볼 수 있겠다.

문민정부에 들어선 1993년의 장학방향으로는 전인교육의 지속적 추진과 학교교육의 정상화 실현에 두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교수-

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학생 생활지도 강화, 스승의 자리찾기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종래의 종합장학을 지양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장학과 지역별 자율장학활동을 강화하며 장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학요원들의 장학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학과 관련한 제반 영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교육청의 장학도 담임장학, 요청장학, 특별장학, 표집장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위한 교과 연구회의 활성화와 교내자율연수, 교사 자율연수를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원장학에 힘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의 장학지도 방침은 지시나 감독보다는 협의와 안내 위주의 장학 형태로 단위학교와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돕는 장학지도로 변화하였다.

(3) 협의·안내 위주의 장학

국민의 정부 장학은 협의·안내 위주의 장학이라고 보았다. 지원·조장의 장학에서 더욱 발전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앞 단계가 다분히 일방적인 장학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장학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교실수업의 지원, 자율화·다양화, 새 학교 문화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하며,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초·중등 교원의 정원 증원, 수준별·선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 교실 및 교사 연구실 등의 확보, 국립대학의 교수 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 육성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교실수

업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의 방향

첫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감독 위주의 장학에서 지원·협의 중심의 장학으로 변화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장학의 목적은 교육활동 전반의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가르치는 활동에 있어서의 질을 높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학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새로운 교육이론의 적용 등을 통해 교수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학은 이러한 본질적인 기능보다는 행정위주의 장학, 검열 위주의 획일적인 장학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장학의 궁극적 목적이 수업 개선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바, 장학방침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현장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야 하겠다.

역대 교육부 장학방침을 보면 지시, 감독 위주의 장학에서 점차 변화하여 협의, 지원장학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도 장학지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시나 감독보다는 협의와 안내 위주의 장학 형태로 단위 학교와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교내 자율장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장학’이란 의미 그대로 장학지도가 실시된다면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목표는 자연적으로 달성되리라고 본다. 장학담당자와 교사간에 합일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장학에 임할 때 진정한 장학협의를 될 것이다.

둘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 중심의 장학에서 학교 중심의 자율

장학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의 질적인 발전은 학교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내 자율장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보조와 교사 스스로의 자각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장학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내 자율장학을 통하여 교사는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거나 교수 기술을 발전시키며,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면서 제반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장학의 본질에 알맞은 수업장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실수업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알고, 단위 학교가 주체가 되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들이 공통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셋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 이는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우리 삶의 환경이며, 시대적 전개 과정이며, 새로운 창조와 함께 형성되어가고 있는 문화의 일종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수업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한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은 학습 방법의 인식, 정보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장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교육은 학습자 능력, 학습방식, 사회적 맥락, 그리고 기타 학습자의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은 평가하는 활동으로 시작된다. 학습자 중심 교육방식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의 개성에 맞춘 학습경험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토론이나 논쟁, 조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고 서로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

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창의적 활동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많이 개발하여 교실수업 개선의 발전을 가져 와야 한다.

넷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교사상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는 빠른 속도로 창조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생활도 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 교사의 가르치는 자세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기존의 습관, 제도, 도덕, 가치관이 변화해 가면서 교육관 교직원도 변화가 생기고 기대되는 교사상도 변하고 있다. 올바른 인성을 지닌 교사, 전문성을 갖고 자율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교사, 컴퓨터, 인터넷 등 첨단기자재를 익숙하게 다루는 교사,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맡은 책임을 완수하는 교사, 거시적인 안목(국제적 감각)을 갖춘 교사가 기대되는 교사상이다(주영갑, 2002).

2. 결론

지금까지 논의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적·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장학방침이 변해왔다. 새의 비상에 비유하여 날개를 펴고, 활주한 다음 날기 시작하여 높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의 4단계로 장학방침의 특징을 생각해 보았다. 제1공화국의 장학방침은 정치·사회적인 변동과 6·25를 겪으면서 교육정책의 많은 변화를 겪은 시기로서 교육 이념의 추구하고 교육 내용의 정비를 이루었으며 민족의식과 반공교육, 경제교육을 강조하였다. 불안정 속에서 작은 몸짓을

한 시기였다. 제2공화국은 4·19 혁명과 5·16 쿠데타에 의한 사회적 혼란으로 제대로 장학방침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으나 학원의 민주화와 교육의 중립성 확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필수교과와 생산성, 합리성,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질적 향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다. 또한 제3·4공화국의 장학방침은 근대화와 경제개발, 유신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 안보교육, 국민정신이념의 구현과 새마을 교육을 강화한 시기였다. 교육재정과 시설에 있어 국가의존도가 높았던 시기로 학교의 여건과 특성 있는 교육의 실현보다는 국가의 시책에 의한 통제성이 특히 강화되었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에 주력한 시기였다. 제5공화국은 신군부 지배를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의 정치·사회적인 영향으로 국민정신교육을 강화, 과학·기술교육과 전인교육, 평생교육을 교육개혁을 통해 시행함으로써 학교는 교육개혁에서 추진하는 시책의 운영을 위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져 통제성이 강화된 시기였다. 심신단련을 통한 전인·평생교육에 힘쓴 시기였다. 제6공화국은 거센 민주화의 물결에 휘말린 정치적·사회적 격동기로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교육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진전으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본격적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문민정부는 신교육을 위한 교육체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한 시기였다. 국민의 정부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힘쓴 시기였다.

이러한 정권의 변화에 따른 장학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장학업무의 수행을 위한 장학 행정 조직이 시대별로 변화하였으며 장학업무의 수행도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신장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왔다. 또한 장학지도의 방법도 지시·감독적인 시학의 방법에서 협의와 안내를 통한 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경영을 도울 수 있는 장학협의로 그 방

향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나. 제1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까지의 장학방침은 교실수업 개선을 향해 조금씩 변화·발전해 왔다. 감독 위주의 권위적인 장학에서 지원·조장의 장학으로, 다시 협의·안내의 장학으로 발전해 왔다. 정부수립 이후 장학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일선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장학도 차차 갖추어져 갔으며, 제2공화국은 사회적 혼란으로 장학방침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웠으나 장학행정의 근대화를 모색하였다. 제3·4공화국 시대의 장학진은 매년 정기적으로 집단 장학팀을 구성하고 직접 현장에서 확인조언을 시작하였으며, 이론 보급이나 권장 형식에 그치지 않고 행정지시를 겸한 강한 실천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장학이란 측면에서 가장 활동적인 시기였다. 그리고 교육방법을 연구·개선한다는 장학방침을 표방하기도 하였다. 제5공화국 시대의 장학방법은 과거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장학지표에서 교내장학, 동료장학, 자율장학, 자기장학 등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습지도의 충실이라는 장학방침이 나타났다. 제6공화국 시대는 교육자치의 실시에 맞추어 지역과 특성에 맞는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수업방법을 개선하여 교과별 장학협의를 기본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새 교육과정의 적용이 원활하도록 힘썼다. 문민정부 시대는 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원장학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장학의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교실수업의 지원, 자율화·다양화, 새 학교 문화 창조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등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였다.

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장학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감독 위주의 방학에서 지원·협의 중심의 장학으로 변해야 한다. 일방적인 지시나 감독보다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장학이 이루어질 때 교실수업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둘째, 교육청 중심의 장학에서 학교 중심의 자율장학으로 변화해야 한다. 학교 교육의 질적인 발전은 학교장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내 자율장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보조와 교사 스스로의 자각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장학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내 자율장학을 통하여 교사는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거나 교수 기술을 발전시키며, 교육과정을 학교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면서 제반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장학의 본질에 알맞은 수업장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생의 창의적 활동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삶의 환경이며, 시대적 전개 과정이며, 새로운 창조와 함께 형성되어가고 있는 문화의 일종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우리는 수업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한다. 넷째,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수업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교사상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는 빠른 속도로 창조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생활도 이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 교사의 가르치는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학생은 변화하는데 교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수업을 질을 높여야 한다.

참고 문헌

- 강영삼 (1997). **장학이론의 기초**, 장학(교육연구)사 양성과정 교재, 교육행정연수원
- 강영삼 (2001). **한국 문교장학 기능의 역사적 고찰**, 교육논총 제21권 제1호, pp. 39 - 63
- 교육개혁위원회 (1997).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1998). **한국교육개혁백서**
- 교육부 (1998). **교육50년사**, (주)청운인쇄
- 교육부 (1992-2001). **교육부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
- 교육부 (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1). **주요업무편람**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1). **교육50년사**(인터넷자료 <http://www.moe.go.kr>)
- 교육인적자원부 (2002). **2002년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보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인적자원정책 추진계획**
- (주)교육신문사(1999). **한국교육100년사 1, 2권**, 교육신문사
- 권영준 (1992). **우리 나라 장학행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1945년 이후 1990년까지의 장학행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국희 (2002). **인간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장학의 방향**, 경기교육, pp. 49-55
- 김명수 (2000).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학교경영**, 교실수업 개선을 지원하는 학교경영, p. 35
- 김영식 (1994). **학교와 교육행정기관과의 자율과 통제**, 교육행정학연구 12(1), pp. 34-35
- 김영우, 피정만 (1995). **최신한국교육사연구**, 교육과학사
- 김윤섭 (2001). **교육행정의 기초**, 양서원
- 김완기 (1990). **장학직의 전문화를 위한 현직연수과정의 탐색**, 교육논총

- 제13집, pp. 109 - 132
- 김종철 (1989).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정미 (2000). **장학의 영역과 교육전문직의 역할 제고**, 연세교육연구 제 13권 제1호, pp. 149-170
- 김정태 (1992). **한국 장학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구 (1992). **우리 나라 중앙 장학행정조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철, 이종재 (1997).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김형관, 오영재, 신현석 (2000). **신장학론**, 학지사
- 김효섭 (1998). **미군정기 교육정책이 한국교육 발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호열 (1996). **1945년 이후 한국 장학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정걸 (1999). **장학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남정걸 (200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 노종희 (1992). **교육행정학 -이론과 연구-**, 문음사
-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21**.
- 대한교육연합회 (1964-2000). **한국교육연감**, 세한신문사
- 문교부 (1983). **80년대 한국교육개혁**, 문교부
- 문교부 (1988). **문교40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민정기 (1989). **한국 중등교육 정책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 8·15 광복 이후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 영 (1984). **우리 나라 장학 행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우진 (2002). **장학방침의 학교 운영에 대한 통제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우진 (2002). **정부수립 이후 한국의 장학방침 고찰**, 교육과학연구 제6권, pp. 199 - 232

- 박재명 (2002). **장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호근 (2000). **한국 교육 정책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1945~1979)**,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성병창역 (1995). **학교조직과 경영**, 양서원
- 손인수 (1998). **한국교육연구사(상)(하)**, 문음사
- 손인수 (1994). **한국교육운동사(1)(2)(3)**, 문음사
- 송화섭역 (2000). **최신 교육행정의 이론탐색과 실제**, 학문사
- 신경수 (1994). **한국 장학 방침의 변천과 장학 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길동 (1999). **현행 장학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 신남호 (2000). **말로만 교육개혁**, 인간과자연사
- 신현석 (2000).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학지사
- 손인수 (2003).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 한국교육평론 2002
- 손인수 (2003).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 제18집, pp. 35 - 78
- 심광한 (1991). **한국 장학행정의 발전에 관한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병영 (1998). **개혁과정과 장관의 역할 - 문민정부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 연세행정논총, pp. 1 - 24
- 오영재 (1999). **장학담당자의 직무 재 구조화 방안 탐색 : 가능한 두 가지 시나리오**, 안암교육학연구 제5권 제12호, pp. 29 - 45
- 유명덕 (1990). **우리 나라 장학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문교부의 장학방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병준 (2002). **학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방안 모색**, 초등장학(교육연구)사 후보자 과정(1), pp. 19 - 36
- 유성은, 송희준 (1994).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의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제27권, pp. 1 - 8
- 윤종건 (1994). **제6공화국 교육개혁의 실상과 허상**, 한국교육개혁의 실상

- 과 허상, 교육행정학회, p. 68
- 윤종혁, 나정, 김정래 (2002). **교육개혁 추진 성공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윤희원 (1998).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제1회 교육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pp. 100 - 110
- 이만호 (1995). **장학행정의 기능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명노 (1993). **교사의 인식에 나타난 교육부 장학 방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봉구 (2001). **장학정책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따른 장학정책 변천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갑 (2000). **한국 장학정책 변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상갑 (2001). **교육 정책면에서의 장학 · 관리 위상 정립**, 학교경영 제14권 제7호, pp. 57-59
- 이성은 (1991). **최신 학교행정과 장학론**, 양서원
- 이성은 (1999). **학교변화와 열린 행정**, 교육과학사
- 이영희 (1992). **한국 문교장학 행정의 변천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윤식 (2000). **새로운 장학의 방향**, 학교경영 제13권 제4호, pp. 92-97
- 이장우 (1997). **한국 장학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 1945년 이후 1996년까지 장학정책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각 (1994). **제5공화국 교육개혁의 실상과 허상**, 한국교육개혁의 실상과 허상, 교육행정학회, p. 34
- 이재학 (1987). **한국 장학행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교육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승 (1995). **교육연구법**, 배영사
- 이행자 (2000). **중등 장학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시 · 군 교육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한기 (1996). 미국의 ‘Supervision’과 한국의 ‘장학’ : 相異한 맥락 속의 相異한 실재, 교육행정학연구, 제14권 제1호, pp. 188-228
- 전일균 (1997). 인간자원개발 장학 모형의 관점에서 본 장학의 변천과 현실, 고려대 교육문제연구 제9권 제2호, pp. 239-262
- 정태범 (1994). 제3공화국 교육개혁의 실상과 허상, 한국교육개혁의 실상과 허상, 1994년도 교육행정학회 하계학술세미나,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학연구회, pp. 1-26
- 정태범 (1996). 장학론, 교육과학사
- 정태범 (1998). 학교교육의 구조적 개혁, 양서원
- 조병호 (1991). 현대장학론, 교육과학사.
- 조상근 (2002). 장학담당자의 장학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흥래 (2001).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 국가 차원 인적자원 정책 총괄·조정, 교육진흥 제51권 제3호, pp. 77-93
- 주삼환 (1992). 새로운 세기의 교장과 장학, 성원사
- 주삼환 (1997). 변화하는 시대의 장학, 원미사
- 주삼환 (2000).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과 행정, 학지사
- 주삼환 (2000).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장학의 방향, 교육발전논총 제21권 제2호, pp. 75 - 88
- 주삼환 (2002). 교육이 바로서야, 주삼환 칼럼, 원미사
- 중등교육협의회 (1980). 한국중등교육35년사, 한국중등교육협의회
- 한국교육개발원 (1982). 장학행정제도 개선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1995). 장학기능 개선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1999). 교육개혁정책의 심층해부, 문음사
-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 한국교육행정학회 (1995). 장학론, 도서출판 하우
- 한기언 (1969). 한국교육사상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허만정 (1995). 우리 나라 장학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탐색,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병기 (1997). 장학의 본질이탈 : 개념적 혼란과 실천적 오류, 교육학연구 제35권 제3호, pp. 181 - 212

- Allan A. Glatthorn (1984). **Differentiated Supervision**, Alexandria Va :
ASCD
- Ben M. Harris (1985). **Supervisory Behavior in Education**(3rd ed.),
Englewood Claffs, NJ : Prentice-Hall
- Charles A. Reavis (1978). **Teacher Improvement through Clinical
Supervision**, Bloomington, Indiana : Delta Kappan, p.
17
- John T. Lovell & Kimball Wiles (1983). **Supervision for Better
chools**, New Jersey : Pren tice-Hall Inco
- Jon Wiles and Joseph Bondi (1980). **Supervision : A Guide to
Practice**, Columu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 pp.
8 - 11
- Kimball Wiles (1967). **Supervision for Better Schools**, 3rd ed.,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p. 10
- Lloyd W. Dull (1981). **Supervision : School Leadership Handbook**,
Columbus, Ohio : Charles E. Merril Publishing Co., p. 5
- Morris L. Cogan (1973). **Clinical Supervision**, Boston : Houghton
Mittlin Co., pp. 242 - 243
- Robert C. Mckean and C. H. Milles (1964). **the Supervision**, N.Y. :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pp.
8 - 9
- Ralph Mosher and David Purpel (1972). **Supervision : The Reluctant
Profession**, Boston : Houghton-Mifflin, p. 4
- Thomas J. Sergiovanni and Robert J. Starratt (1979). **Supervision :
Human Perspectives**, N. Y. : McGraw-Hill Book Co.,
p. 15